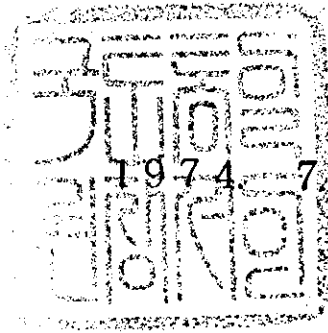




#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의 對南韓 適用可能性 診斷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7.

研究機關： 漢陽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柳 世 熙

# 目 次

1. 序 言 .....	3
2. 人民革命理論 一般内容斗 實際 .....	6
3. 北韓의 对南人民革命戰略 .....	17
4.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에 对処할 大韓民國의 脆弱点斗 強点 .....	23
A. 民族的矛盾斗 階級的矛盾의 檢討 .....	23
B. 強 点 .....	44
C. 脆弱点 .....	52
5. 对策 ( 結論 ) .....	69



## 1. 序 言

1970年 11월에 열린 北韓의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 「남조선 혁명」의 當面課題를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 規定함으로써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은 北韓의 對南政策의 基本이 되었다. 本稿의 目的은 이러한 北韓의 人民民主主義革命戰略(以下 人民革命戰略이라 略稱함)의 內容이 무엇이며 과연 大韓民國의 現實情에 있어서 北韓이 노리는 人民革命이 可能한지 可能하다면 어떠한 形態로 推進될 것인지를 살펴 보고자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研究가 신빙성 있고 說得力이 있기 爲해서는 南韓에 있어서 人民革命 推進의 主要 因子들(factors)이 確認抽出되어야 하며 各 因子들의 內容이 經驗的 論據(empirical evidences) - 可及적이면 物量的 資料(quantitative data) - 에 依하여 糾明되지 않으면 안된다. 現時點에 있어서 이와 같은 研究는 大體로 세가지의 理由에 依하여 크게 制約을 받고 있다.

첫째는, 다른 社會變動 研究에 있어서도 問題가 되는 것만 마친가지로 革命推進因子들의 相互連結性(correlation), 相互作用性(interaction), 그리고 不斷 變化性(incessant change)에서 오는 制約이다. 卽 革命의 要因은 複合的이며 이러한 複合要素들은 個別的 因子로서 獨立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連結되어 있기 때문에 한 要因의 變化는 다른 要因들의 內容에 影響을 미치며, 反面에 自身에 依하여 變化된 他要因들에 의하여 한 要因 스스로도 影響을 입고 變化되는데, 이와같은 變化는 끊임없이 繼續

된다는 點이다.

둘째는, 人民革命推進 要因들의 測定問題라 하겠다. 이 點을 뒤  
에 다시 仔細히 言及하겠지만 어떤 要因들은 比較的 測定이 安易  
한 반면에 어떤 것은 1 매우 重要的 要因임에는 틀림없으나 그 測  
定이 매우 困難하여 다른 要因들과의 比重의 順位決定을 어렵게  
하는 點이다.

세째로, 資料의 欠乏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制約으로 인하여 本 論文은 그 最善의 形態에 있어서  
一般論的이며 推測的 (speculative) 인 것으로 밖에 歸結되지 않  
는 것이다. 이 研究가 비록 너무 直觀的이고 主觀的이라는 非難  
을免키 어렵다 하더라도 本 研究 素材의 重要性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의 앞으로의 研究에 多少나마 도움이 되길 希望한다.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의 內容을 범하기 앞서 우선 다음 章에서는  
人民革命戰略의 一般理論에 関하여 外國의 境遇를 들어 그 理論과  
實際를 考察하고 北韓의 人民戰略의 內容은 第3章에서 다루기로  
한다. 第3章에서 行해질 討議는 1) 北韓이 1970년에 人民革命  
戰略을 採択하게 된 動機는 무엇이며 이 새로운 戰略은 1970年  
以前의 對南戰略과 如何히 다른가 2)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은 外國  
의 그것과 如何한 類似點과 差異點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두가지  
質問에 그 焦點을 맞추게 될 것이다.

第4章에서는 人民革命戰略이 南韓에서 適用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와 關聯하여 北韓이 말하는 소위 南韓의 革命勢力을 우선 考  
察하고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에 對應하는 南韓의 強點을 討論한 뒤

에 南韓이 가지고 있는 脆弱點은 大略 여섯가지 側面에서 考察하기로 한다. 그리고난 다음에 北韓이 노리는 南韓內의 人民革命이 發生한다면 어디서 發生한 것인가에 대하여 論議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章인 第5章에서는 잠정적 結論으로서 몇가지 對 應策을 提示코져 한다.

北韓의 南韓赤化의 基本戰略 或은 要件은 原來 1965年 4月 金日成이 「인도네시아」의 社會科學院에서 行한 演說과 1968年 9月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스무돛 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에서 다시 부여된 바 있는 3大革命力量의 強化, 即 革命基地로서의 北韓 自体의 力量強化, 남조선 인민의 혁명力量의 強化 그리고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세력과의 단결 強化이다. 本稿가 다루려는 人民革命戰略의 對南 適用可能性 診斷은 바로 3大 革命力量中 두번째인 「남조선 인민의 혁명력량의 강화」에 該當되는 바, 金日成의 3大革命力量의 有機的連帶論이 暗示하고 있는 것 처럼 北韓의 對南戰略은 北韓自体의 對內問題 그리고 國際情勢와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의 實効性을 檢討하기 爲해서는 앞으로의 北韓内部의 狀況變化의 問題, 國際情勢의 推移에 對한 判斷도 並行되어야 하겠지만 本稿에 있어서는 北韓自体의 狀況과 國際情勢가 別變動이 없다는 假定-이러한 假定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別途의 問題임-을 大前提로 討論을 推進시킬 것임을 밝혀둔다.

本 研究의 方法은 앞에서 資料問題와 關聯하여 이미 言及한 것 처럼 物量的 分析 接近方法이라기 보다는 주로 歷史的, 制度的, 社會, 經濟的 分析方法的 混合이 될 것이다.



## 二. 人民革命理論의 一般內容과 實際

西歐式 自由民主主義가 나라마다 그 成立背景과 環境의 差異로 말미암아 具體的인 內容과 形式에 있어서 固定된 定型이 있는 것이 아니라 差異가 있는 것 처럼 各國의 共產主義체제도 「프로레타리아트 獨裁」를 표방하는 點에서는 共通되나 그 成立過程이라던지 內容에 있어서는 各樣各色이라 할 수 있다. 어느 面에서 보면 거의 無定型하다고까지 할 수 있다. 原來 「맑스」와 「엔겔스」에 依하면 共產主義革命은 資本主義가 高度로 發達된 産業社會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 革命當時의 「로시아」는 後進國이므로 朝鮮의 革命自体도 古典的 共產主義理論과는 맞지 않는 狀況에서 發生한 것이다. 1) 古典的 共產主義理論의 또 하나의 커다란 盲點은 農民階級을 保守階級으로 規定하고 共產主義革命에 있어서 勞動者階級の 同盟者가 될 수 없음은 勿論 더 나아가서는 共產革命에 障礙가 되는 反動勢力으로 본 點이다. 2) 農民에게는 分明히 保守主義的인 要素가 濃厚하다. 그러나 農民階級은 반드시 共產主義革命과 對立되는 勢力만은 아니며 狀況에 따라서는 오히려 共產革命을 積極的으로 推進하는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 「로시아」 革命以後 後進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運動이 立証하고 있다. 朝鮮의 境遇만 하더라도 革命의 主導勢力은 都市의 勞動者였지만 農民階級の 呼應과 參與로 共產革命은 成功할 수 있었던 것이다.

第2次 世界大戰의 終戰을 前後로 東歐羅巴와 亞細亞를 中心으로 出現한 「人民民主主義」는 「맑스」의 古典的理論에서 말하는 共產

主義革命을 爲한 前提條件이 欠如되 있는 地域에서 共產革命을 遂行하기 爲한 理論的 뒷받침을 爲한 궁여지책의 產物이라고도 할 수 있다. 卽 共產革命을 主導할 勞動者의 勢力이 極度로 微弱한 狀態에서 如何히 共產革命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와 隗聯된 것이다. 바로 앞에서도 指摘했다시피 古典的 共產主義理論 (orthodox marxism)에 적용하는 共產革命은 지금까지 存在하지 않아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지가 않다.

古典的 共產主義理論의 勁直性에 隨伴된 現實과의 격리를 해소시키고져 出現한 것이 바로 「레닌」이다. 卽 「맑스」와 「엔겔스」가 共產主義理論의 全體的인 틀 (frame)을 만들었다. 한다면 「레닌」은 그 틀의 到處에 난 구멍을 때워부치는 補修作業을 맡은 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問題는 補修作業의 結果, 全體的 모습이 本來의 그것과는 전혀 異質的인 것이 되고 말았다는 事實이다. 實際로 現存하는 共產主義體制들은 과연 「프로레타리아트」 獨裁體制인지 아니면 「프로레타리아트」 獨裁를 가장 한 君主制 또는 寡頭制인 지를 알 수 없을 경우가 많다. 各國의 共產政權은 「맑스-레닌이즘」을 표방함으로써 얼핏보기에는 「맑스」的 要素와 「레닌」的 要素가 均等히 配合된 것 같지만은 實際는 그렇지 못하다. 대체로 「맑스」的 要素는 至極히 名目上에 不過하고 「레닌」的 要素만이 強調되는 實情이다.

「맑시즘」과 「레닌이즘」의 基本的 差異는 共產主義者들은 猛烈히 否認하고 나서겠지만 지금까지 各國 共產主義運動을 綜合하여 볼 때 大略 다음과 같이 指摘할 수 있다.

첫째, 革命 및 그 要件에 대한 觀點에 있어서는 「맑스」는 歷

史的 必然性에 依한 自然發生的 現象이라 본 反面에 「레닌」은 革命에 있어서는 人爲的 要素를 強調하였다. 여기서 「人爲的」要素라 함은 革命이 所謂 「歷史的 必然性」에 依하여 스스로 發生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成熟되지 않은 條件을 先동 자극 조작 等に 依하여 誘導해서 革命을 促進시키는 積極的인 態度를 말한다.

둘째, 「맑스」의 思想의 要諦는 經濟決定論인데 反하여 「레닌」의 그것은 政治決定論이다. 이와같은 差異點은 첫째번의 差異點에서 나오는 結果라고 말할 수 있다. 卽 「맑스」에 依하면 革命의 決定的인 要件은 環境 經濟的環境인데 대하여 「레닌」의 경우는 環境(다시 말해서 變화된 새로운 生産力과 이를 포용할 수 없는 生産關係 卽 既成의 制度와의 對立)도 重要하지만 革命이 成功되기 위해서는 혁명을 이끌어가는 指導力 다시말해서 革命의 前衛로서의 「黨」의 役割을 強調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黨의 指導力 如何에 따라서 革命을 앞당길 수도 있고 成熟된 革命의 雰圍氣를 오히려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革命은 客觀的 條件만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맑스」와 「레닌」은 人間의 本性에 대한 見解에 있어서는 差異가 진다. 얼핏보기에는 兩者 다 人間의 本性은 原來 善하지도 惡하지도 않는 中性으로서 다만 좋은 制度 밑에서는 善良하고 나쁜 制度 밑에서는 惡해 진다는 것을 主張하는 것 같지만 좀더 세밀히 觀察하면 「맑스」의 人間의 本性에 대한 見解는 性善說 편에 「레닌」은 性惡說 편에 치우친 것을 알 수 있다. 卽

「맑스」의 思想은 人間은 根本적으로 서로가 믿고 協調하는 自律的 能力을 갖었으며 人間의 歷史는 바로 이와같은 能力을 實現하는 方向으로 간다는 樂觀論에 根拠를 두고 있다. 「앞으로 必然적으로 到來할 共產主義社會에서는 人間은 남을 착취하려고도 않고 서로가 協同하며 完全 平等한 立場에서 能力에 따라 일하며 必要에 따라 消費하게 될 것이라는 主張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레닌」은 人間의 自律性 自治性에 대하여 悲觀的 見解를 多分히 나타내고 있다. 그는 「맑스」가 말하는 共產主義的 理想 郷의 到來를 깨닫고 否定하지는 않았으나 組織, 規律, 黨에 의한 大衆의 指導, 선동과 操作, 社會主義的 競爭等을 強調함으로써 人間의 自律性 自治性에 회의를 나타낸 것이다. 「權力을 追求하는 動物로서의 人間」은 그의 人間本性에 대한 基本的 概念을 이루며 따라서 그가 社會를 보는 觀點은 「토마스·홉브스」의 「萬人對 萬人의 競爭關係」와 매우 類似하다. 人間社會의 要諦를 이루는 對立과 競爭이 어떻게 共產主義社會에서는 解消되는지를 그는 分明히 하지 않았다. 아니 分明히 할 수도 없거니와 分明히 하기를 願치 않을 것이다. 「맑스」와 「레닌」은 둘다 「客觀的眞理」나 「科學性」을 強調하였지만 「맑스」에 있어서는 「觀念的 理想」의 要素가 농후하였으며 반면 「레닌」에 있어서는 「마키아벨리」的인 現實主義的 色彩가 濃厚하다고도 말 할수 있을 것이다. 「레닌」을 理念家 (ideologue)라기 보다는 戰術家 (tactician)로 規定하는 理由가 바로 여기에 있다. 「레닌」의 戰略과 戰術의 核心은 目的을 爲해서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말라는 것이다.

弱利만 하면 그동안에 使用된 모든 手段과 方法은 正当화된다는  
理論이다.

바로 이 點에 우리는 特別히 留意를 해야하며 現存하는 共產體  
制들은 모두 이 原則을 基本的인 行動강령으로 삼고 있다는 點에  
더욱 그러하다. 目的을 爲해서는、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敵이 弱할 때는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敵이 強할 때는 妥協을 하되 그 妥協은 언젠가는 逆襲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시 말해서 背信과 기만을 前提로 해야 된다는  
것이다. 背信과 기만을 前提로 하지 않는 妥協이란 굴복을  
의미하고 背信과 기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眞正한 共  
産主義者가 되느냐 修正主義者가 되느냐로 區別할 수있다고 「레닌」  
主義的 共產主義者들은 믿고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우리가 檢討하고자 하는 人民民主主義理論도 바로 위  
에서 말한 내용을 基幹으로 해석되지 않으면 안된다. 即 人民民主  
主義革命理論은 「프롤레타리아트 獨裁」라는 共產主義理念을 修正한  
데서 나온 「새로운 理念을 爲한 理論」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트獨裁로 가기 위한 하나의 戰略을 爲한 理論」이라는 點이다.

筆者가 이처럼 人民革命論을 「이념이론」이 아니라 「戰略理論」이  
라고 分明히 하는 이유는 人民革命理論을 往往 「理念理論」인 것  
으로 混同하는데서 오는 蹉跌, 다시 말해서 目的과 手段을 分明히  
區別하는 現存 共產體制의 本質을 파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차  
질을 指摘하고자 하는데 있다.

人民革命理論은 한마디로 말해서 弱少後進國에서의 共產主義革命을

達成하기 爲한 戰略理論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共產革命理論은 大體로 세가지로 綜合할 수 있다.

### 1) 一段階革命理論

이것은 先進産業國家에 適用될 戰略理論이다. 卽 先進産業國家에는 튼튼한 工場勞動者階級이 存在하므로 곧장 「프롤레타리아트」 革命이 可能하다는 理論이다. 다시 말해서 「맑스」의 古典的 狀況과 合致되는 理論임. 그러나 아직까지 一段階革命이 實現된 例는 없다.

### 2) 二段階革命理論

後進國에 適用되는 理論인데 다만 最近에 帝國主義의 植民地가 되었던 經驗이 없는 경우를 가르킨다. 第1段階는 「부르조와」 民主革命의 段階이며 第2段階는 「프롤레타리아트」 獨裁革命의 段階이다. 卽 後進國에 있어서는 勞動者階級の 弱體性은 勿論이러니와 勞動者階級 形成 以前에 先行되어야 할 「부르조와」 階級, 亦是 微弱하므로 우선 反封建 「부르조와」 民主革命부터 이룩해 놓고 그 다음에 成長하는 勞動者階級을 규합, 「프롤레타리아트」 革命을 遂行해야 된다는 理論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二段階革命理論은 그 運營에 있어서 狀況判斷에 必要한 明確한 基準이 없어서 問題點이 있으며 實際로 一段階革命理論과 마찬가지로 實効를 본 例가 없다. 1920年代 後半의 日本에서 左翼들간에 日本의 狀況을 一段階革命과 連結시킬 것이냐 아니면 二段階革命과 結付시킬 것이냐는 「로

노파(勞農派)」와 「고자하」간의 熱戰 論爭<sup>3)</sup>은 그 좋은 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3 段階革命理論

이것은 帝國主義에 屈服되었던 아니면 帝國主義의 壓迫하에서 完全히 剝奪되지 못한 弱少後進國에 該當되는 理論이다. 第1 段階는 階級을 超越한 統一前線, 聯合前線, 民族前線을 形成하여 (必要하면 「부르조아」階級の 領導마저 認定함) 주로 反帝鬭爭을 展開하여 獨立을 爭取하는 段階이며 第2 段階는 統一前線 (United front) 民族前線 (National front) 을 「프롤레타리아트」階級の 領導下의 人民前線 (People's front) 으로 代置하는 段階이며 第3 段階는 完全히 「프롤레타리아트」 獨裁로 轉換하는 段階이다. 따라서 人民革命理論은 3 段階革命의 第2 段階에 該當하는 理論이다.

그러면 「人民」이란 누구를 指稱하는가? 地主階級, 大資本家, 買辦資本家, 官僚階級을 除外한 全階級 即 勞動者, 農民, 小「부르조아지」, 知識人, 學生, 民族資本家를 말한다. 4) 結局 人民革命의 段階는 革命推進勢力的 構成으로 볼 때 反帝 反封建革命을 完遂하고 黨의 領導에 의한 「프롤레타리아트」階級이 革命勢力으로서의 位置를 確立하는 段階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主張은 오직 理論上에 不週하고 實際面에서 볼 때 이와같은 理論이 일단쯤 實効를 거두워 왔는지는 至極히 의문스럽다. 무엇보다도 「프롤레타리아트階級の 人民前線에 있어서의 領導」라는 점이 더욱 그러하다. 實例로 人民民主主義路線의 典型이라고 할 수 있는 東歐羅巴 여러나라의

人民民主主義政權들이 如何히 樹立되었는가를 보기로 하자.

第2次大戰 直後 人民民主主義를 표방하고 나선 東歐羅巴의 共產 國家들 -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체코슬라비아」, 「폴란드」 - 은 전부 「나치」 獨逸에 依하여 占領되었다가 終戰과 더불어 解放되었다는 共通點은 있으나 共產政權 樹立 過程面에서 볼 때에는 大略 세가지 類型으로 나눌 수 있다. 5)

### 1) 「게릴라」戰에 의한 共產政權樹立

「나치」의 占領期間 組織된 土着 「게릴라」들이 終戰後 內亂을 通하여 共產政權을 樹立한 경우인데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가 그 예이다. 兩者의 共通點은 極度の 貧困과 經濟的落後 外部로부터의 孤立(地形上), 그리고 複雜한 人種問題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게릴라」戰을 可能케 했던 要因들은 高地帶라는 地形과 人種(或은 氏族)的 団合이 있으며 貧富의 線(economic cleavage)이 人種의 線(ethnic cleavage)과 反「나치」, 親「나치」의 民族主義的 感情과 接點에서 共產勢力이 得勢를 할 수 있었는데 特히 이러한 要素는 「유고슬라비아」에서 強하였다. 한가지 特記할 點은 經濟적으로 落後된 다른 後進國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共產「게릴라」의 主力을 이루었던 것은 勞動者가 아니라 農民들이었다는 것이다.

### 2) 準議會的 節次를 통한 共產政權樹立

이 경우는 共產黨이 比較的 오랫동안 存続해 왔고 상당한



支持를 國民들로 부터 받아오다가 「나치」占領期間 活動을 中止,  
그리고 終戰後에 議會制의 復活과 더불어 다시 活動을 하게 된  
「체코슬라바키아」와 「헝가리」가 이에 該當한다. 兩者가 오랫동안  
西歐議會制度의 影響을 받았고 經濟形便과 國民들의 生活水準도  
다른 東歐의 나라들과 比較해서 부유한 便이다. 地形이 「게릴라」  
戰에 不利한 點도 있겠지만 軀軸國의 占領期間에 別로 地下運動이  
없었고 戰後에도 左右間의 內亂이 없었다. 다만 「나치」의 敗亡  
으로 極右勢力(政黨)이 沒落되고 소련의 影響力 때문에 共產黨에  
대한 國民의 支持가 急上昇하자 暴力의 使用없이 人民前線의 形態  
로 体制의 平和的轉換을 이룩한 것이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경  
우 人民前線의 中心勢力을 이루었던 것은 「체코」共產黨, 「슬로박」  
共產黨, 社会民主党, 民族社会黨이 있으며 이들은 基督教人民黨과  
「슬로박」民主黨을 前線內에 포용하였다. 「유고슬라비아」나 「알  
바니아」와 또한 对照가 되는 點은 人民前線形成에 있어서 農民의  
役割이 微微하다는 點이다. 6) 또 한가지 興味있는 點은 共產体制  
의 樹立過程이 比較的 平穩했던 것 처럼 「헝가리아」와 「체코」  
는 東歐國家中 自由化의 물결이 가장 빨리 온 나라라는 點이다.  
비록 소련의 武力的 개입때문에 自由化運動이 좌절되기는 하였지만  
自由化運動의 背後에는 過去의 西歐的 議會制度의 經驗이 重要한  
作用을 한 것으로 믿어진다.

### 3) 소련軍의 진주에 의한 共產政權樹立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東獨이 이 경우에 該

당하며 어떤 意味에서는 「헝가리」나 「체코」는 勿論이고 「유고슬라비아」나 「알바니아」의 人民政權樹立도 朝鮮의 武力에서 오는 影響力의 結果로 볼 수 있다. 朝鮮軍이 進駐하기 前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東獨에서의 共産黨勢力은 極히 微微하였으며 一部 知識人들을 中心으로 構成되었을 뿐 大衆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特히 「폴란드」의 경우는 「나치」占領期間中 諸般地形的 惡條件에도 不拘하고 強力한 地下運動을 벌렸던 「레지스탕스」勢力은 圧倒적으로 反共産主義 反「러시안」的이었는데 朝鮮軍의 進駐와 더불어 反共勢力은 完全히 압도되고 共産政權이 들어서게 된 것이다. 이 점은 朝鮮軍의 進駐가 共産政權樹立에 絶對的 役割을 한 北韓의 경우와 一致하는 것이다.

以上으로 東歐의 경우를 考察하였거니와 그러면 다른 地域에 있어서 人民革命의 內容은 어떠한가? 紙面關係上 亞細亞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諸國들의 狀況을 일일이 記述하기는 어렵고 必要에 따라 뒤에 具體的인 例를 들어 言及하였지만 一般적으로 말해서 그 理論에 있어서는 毛沢東의 新民主主義論이 보여주듯이 「人民」의 定義나 民族統一戰線 形成 및 鬭爭方法等 東歐의 人民革命理論과 別差가 없다. 다만 實際面에서 볼 때 거의 大部分의 경우가 東歐의 첫번째 類型, 即 「유고슬라비아」나 「알바니아」처럼 武裝鬭爭의 形態를 나타내고 있으며 經濟形便으로 볼 때 東歐보다 工業化가 훨씬 뒤져 있으므로 農民이 봉기세력의 主軸을 이루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以上の 것을 綜合하던 「프로레타리아트」階級을 中心으로 各階級

問의 聯合戰線을 形成하여 「프롤레타리아트」革命으로 지향한다는  
人民革命理論은 그 實際面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階級에 의하여  
主導되는 경우가 드물고 革命推進의 樣式도 各國形便에 따라 多樣  
함을 알 수 있다. 卽 議會制가 運營되는 狀況에 있어서는 議  
會鬭爭으로 外部로부터의 介入이 可能的 地域에서는 外部의 壓力으  
로 強力한 反革命勢力이 存在하는 경우에는 武裝鬭爭으로 或은 이  
세가지를 모두 並用하는 方法으로 既存体制의 전복을 企圖하는 것  
이다. 그러면 1970년에 對南基本戰略으로 公式적으로 採択된 北  
韓의 人民革命戰略의 內容은 어떠한가를 檢討하기로 하자.

### 三.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

1960年 12月 「모스크바」에서 열린 81個國 共產黨大會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 後進國의 共產主義運動과 關聯된 現段階의 狀況을 民族民主主義革命이라고 結論지은 것에 뒤이어 1961年 9月 北韓의 勞動黨은 그의 第4次黨大會에서 兩韓革命의 性格을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이라고 規定하였다. 그리고 1970年 11月의 勞動黨 第5次 黨大會에서는 北韓은 다시 兩韓革命의 性格을 「人民民主主義革命」으로 規定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檢討하고자 하는 것은 北韓의 소위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과 「人民民主主義革命」의 差異點은 무엇이며 差異가 있다면 무엇이 北韓으로 하여금 이와같은 方向轉換(?)을 하도록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다.

위의 두 가지 路線의 差異點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北韓이 發表한 主要 聲明書들의 文脈을 檢討해서 兩者間의 差異點을 알아내는 것이 한 方法이고 또 하나의 方法은 北韓의 實際行動을 分析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우선 文脈上의 差異부터 보기로 하자.

#### 1)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 推進期 (1961年 9月 - 1970年 11月) 中 主要聲明內容

가. 反美帝國主義運動, 美帝國主義者들을 南朝鮮으로 부터 驅逐하는 鬭爭

「反美救國 統一戰線」 및 「革命的 黨」이 南朝鮮에서 組織  
되어야 할 必要性

나. 北朝鮮 全人民의 武装化와 全国土의 要塞化

나. 北半部の 革命基地의 強化

라. 越北者들에 對한 教養育成後 南朝鮮革命을 爲하여 再派遣

마. 南朝鮮革命力량의 成長에 의한 革命的 大事變을 맞이할  
準備의 必要性

바. 南朝鮮에 있어서의 「게릴라」戰術의 導入 必要性

사. 地主,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를 타도하고 各계각층을 망라  
한 人民政權의 수립 ( 1966 )

아. 南朝鮮 革命完遂에 의한 祖國統一

자. 暴力的方法에 의한 南朝鮮政權의 전복

차. 南朝鮮에서의 「決定的時期」를 爲한 北朝鮮으로부터의 지원  
7)

2) 人民民主主義革命 推進期 ( 1970年 11月 - 現在 ) 中

主要聲明內容

가. 反美帝國主義運動, 反「과소」 및 民主化鬭爭, 反封建鬭爭

나. 民族解放革命

다. 地主, 매판資本家, 반동관료배 打倒를 爲한 勞動者階級, 農民階級, 進歩적인 靑年, 學生, 一部愛國的軍人, 民族資本家, 小

「부르조와」階級間의 동맹에 의한 人民政權樹立

라. 地下黨의 組織強化로 革命力량의 強化

마. 暴力革命에 의한 南조선정권의 打倒

바.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 및 半合法, 非合法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등 모든 鬭爭을 動員하여 革命을 完遂  
사. 南조선革命의 支援<sup>8)</sup>

以上 北韓의 對南戰略으로서의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과 人民革命의 主要「슬로간」으로 볼 때 兩者間에는 아무런 差異가 없음을 알 수 있다. 兩者 다 南韓에서 「美帝國主義者를 몰아내고 封建 反動勢力인」 大韓民國政府를 「모든 方法을 總動員하여 打倒」하고 赤化統一을 하자는데 이것은 解放後 朝鮮軍의 北韓에의 진주로 金日成政權이 들어선 이래 계속 되어 온 구호를 民族民主革命이니 人民革命이니 하는 말로 수식한데 지나지 않는다.

實際行動面에서 볼 때에도 南韓의 赤化統一이라는 原則에는 變함이 없다. 休戰以來 繼續되어 온 間諜의 南派라든지 停戰協定 違反이라든지 其他 大韓民國政府에 대한 적대행위는 시기에 따라 程度의 差異는 있을 지언정 赤化統一이라는 그들의 原則을 反映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北韓의 對南 基本原則은 그동안 수 많은 그들의 平和攻勢가 얼마나 허위인가를 証明해 준다. 平和統一이란 그들의 구호는 現時点에서 赤化統一을 爲한 心理的効果를 考慮한 하나의 戰略에 不遇한 것이지 그 自体가 原則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이 可能하다는 結論만 내려지면 아무 때나 平和統一은 武力統一으로 바뀔 것이다.

赤化統一이 이루어질 수 있는 方法은 1) 武力으로 南韓을 征服하는 方法 2) 南韓自体内에서 共產主義勢力이 成長, 蜂起에 의한

本制 전복 3) 南北總選舉를 통한 共産黨의 政權장악이라는 세가지  
 경우를 想定할 수 있는데 첫번째 경우는 北韓이 南韓에 대하여 소위 東歐  
 羅巴 여러나라와 北韓에 대하여 한 役割과 같은 役割을 하지는 것이고  
 두번째 경우는 東歐에 있어서 「유고」와 「알바니아」 그리고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여러나라 (例를 들면  
 中共, 「큐바」, 越盟 等)에서 볼 수 있는 경우이고 세번째 경우  
 는 東歐의 「체코」와 「헝가리」 그리고 「아이엔데」治下의 「칠리」  
 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越南의 경우는 두번째 방법에 따라  
 첫번째 방법이 합쳐진 경우라 말할 수 있다.

北韓은 韓半島의 赤化統一에 있어서 以上の 세가지 方法의 可能  
 性을 다 보고는 있으나 現時點에 있어서는 두번째 방법에 主力을  
 두고 있으며 越南의 경우처럼 두번째 방법과 첫번째 방법을 混合  
 하는 可能性도 꽤 모색하는 것 같다. 即 「남조선에 있어서 혁  
 명력량이 계속 장성하여 결정적인 대사변이 올 때 북조선의 혁명  
 력량은 이를 지원할 것이다」라는 말은 越盟이 越南의 赤化를 為  
 하여 「비에트 콩」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같은 事態를 意味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북한은 지원에 앞서 우선 남한 국민들이  
 스스로 反體制운동을 활발히 전개시켜 주는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다.

내용상에 하등의 差異가 없으면서도 南韓의 狀況性格을 「民族民  
 主革命」에서 「人民革命」段階로 그 名稱을 바꾼 것은 그들이 예  
 측했던 것과 달리 大韓民國이 60年代에 있어서 急激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자 赤化統一에 있어서의 위에 말한 첫번째와 세번째의 方法

의 可能性이 激減된 데에서 온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눈에 띄이리만큼 上昇한 南韓의 国力은 武力에 의한 南韓赤化 可能性을 저하시킨 반면 남북총선거를 통한 共産黨의 정권장악이라는 것은 원래 남북총선거라는 것 자체가 國際政治의 推移와 밀접한 關係를 갖기만큼 비교적 가까운 장래에 있을 可能性이 희박한데다가 大韓民國의 경제적 成長은 大韓民國의 국제적 位置를 上昇시킨 결과를 갖어 왔으므로 結局 北韓으로서는 南韓内部의 混亂을 助長하는 方法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와같은 狀況에서 北韓은 對南戰略의 名稱을 「民族民主革命」에서 좀더 과격한 「人民革命」으로 바꾸고, 실제 行動에 있어서도 60年代末부터 「프예블로」 사건, EC 121 事件, 1.21 事態, 東海岸武裝間諜上陸事件을 위시하여 최근의 西海 漁船격침 남북事件, 東海岸경비정사건 등 好戰的인 態度를 나타내기 始作한 것이다.

北韓이 이처럼 好戰的인 態度를 取하는 底意는 여러가지로 풀이될 수 있다.

첫째, 對內的으로는 緊張을 造成함으로써 金日成의 그동안의 政策上 잘못에 대한 批判을 막으며 오히려 北韓의 人民들을 勞役に 좀더 強力히 動員할 수 있으며,

둘째는, 經濟發展은 社會가 安定된데에서 이루어지는데 緊張과 不安을 造成함으로써 南韓의 經濟活動 및 南韓에 대한 外部로부터의 投資를 저해, 그동안에 급작히 팽창된 경제를 침체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社會問題를 階級間의 對立으로 발전시키고,



세계는 남한 국민들의 反共態勢와 能力을 시험해 보는 의도도  
있는 것이다.

以上으로 볼 때 1970年 노동당 제5차대회에서 採択한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北韓이 해방이후 계속해서 추  
구해 온 남한 自体内에서의 共產蜂起를 다시 強調한 것에 不過한  
것이다. 따라서 北韓의 對南 人民革命戰略의 實効性を 診斷한다는  
것은 果然 南韓에서 共產主義革命이 可能하냐, 可能하다면 어떠한  
要素가 어떠한 形態로 發展하여 될 것이며 可能하지 않다면 어떠  
한 要素가 共產革命을 막는 役割을 할 것이냐는 問題들을 檢討하  
는 것이 될 것이다.

#### 四.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에 對處할 大韓民國의 脆弱點과 強點

##### A. 民族的矛盾과 階級的 矛盾의 檢討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을 두가지의 基本命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卽 南韓에는 심각한 民族的矛盾과 階級的矛盾이 있으며 이 두가지의 矛盾은 서로 겹쳐 民族解放 人民革命은 不可避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北韓이 보는 南韓의 決定的인 脆弱點은 民族的 矛盾과 階級的 矛盾이며 이와같은 矛盾을 直接間接으로 增大化시키는 것이 對南人民革命戰略의 戰術이라고 할 수 있다. 本章에서는 우리나라대로 南韓의 脆弱點과 強點을 討論하기에 앞서 北韓式의 解釈이 어떠한 妥當性을 갖고있는가 부터 考察하기로 하겠다.

우선 「民族的矛盾」부터 檢討한다면 北韓側의 論理를 대략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 1) 南韓은 美國과 日本에 完全히 政治的 經濟的으로 壓迫되어 있으며
- 2) 南韓의 支配階級인 地主 매관자본가 반동관료계급은 이들 帝國主義의 壓迫으로 대중을 착취하는바
- 3) 이들의 反民族的行爲는 大衆의 民族感情을 高揚시켜 帝國主義勢力 對 民族主義의 對立을 激化시켜
- 4) 머지않아 民族解放을 爲하여 총렬기한 피착취대중에 의하여 現體制는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이다.

共産主義運動이 元來 民族보다는 階級이라는 線에서 運動의 求心  
 點을 찾아야 함에도 不拘하고 「레닌」의 帝國主義戰爭理論과 그  
 以後 世界共産主義運動이 主로 後進國 特히 強大國의 壓迫하에 있  
 는 植民地에서 活潑히 展開됨에 따라 民族主義를 強調하는 것은  
 後進國 共産主義者들의 通例로 되어왔다. 實際에 있어서 共産主義者  
 들이 獨立運動의 中心을 이루어온 地域에 있어서는 (例를 들어 越  
 盟이나 「큐바」, 「유고슬라비아」等) 保守勢力을 親植民勢力 그리고  
 共産主義者들을 民族主義勢力으로 主張하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이  
 다. 그러나 具體的狀況에 대한 考慮없이 民族主義를 共産主義者들  
 의 独占物인양 主張하는 것은 많은 차질을 초래한다. 우선 民族  
 主義를 構成하는 要素가 그리 간단치 않으며 더군다나 推想的  
 이고 막연한것이 아닌 現實的으로 大衆들에게 어필하는 民族主義의  
 實內容은 경우에 따라서는 專門家가 보기에 民族主義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먼. 엉뚱한 것일 수도 있다.

中共의 경우만 하더라도 學者들 間에는 毛沢東이가 1937年 以  
 後 農民들로부터 갑자기 많은 支持를 받게된 이유는 日本의 大陸  
 침략을 계기로 中國共産黨이 展開한 抗日運動이 決定的 契機가 되  
 었다고 하는 見解가 있지만<sup>9)</sup> 學者에 따라서는 다른 主張을 하는  
 사람도 많다. 即 中國農民들의 共産黨에의 呼応原因을 地主들의  
 착취에서 說明하는 「不滿理論 (grievance theorg)」,<sup>10)</sup> 支持  
 하지 않을 경우 共産軍으로 부터 報復이 두려워서 지지하게  
 되었다는 「恐怖理論」<sup>11)</sup>, 旧秩序 破壞를 爲한 社會參與라는 面에  
 서 說明하는 「近代化理論」<sup>12)</sup> 등이 있다. 中國에 있어서 共産

黨의 勝利를 農民들의 民族主義에서 說明하는 「民族主義理論」이 갖는 弱點은 Donala G. Gillin 이 指摘하다시피 中國에 있어서 抗日民族主義는 農民보다는 學生이나 一般知識人 或은 上流階層의 사람들 (gentry) 에게 보다 強하게 作用하였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리라는 點에 있다.<sup>13)</sup> 이와같은 弱點에도 不拘하고 中國의 境遇 中共軍의 活潑한 抗日 鬪爭이 民心을 共產黨쪽으로 이끈 「하나」의 要因이 되었음은 否定 할수 없다. 그러면 現時點에 있어서 南韓의 境遇는 어떠한가? 과연 北傀側이 主張하는것 처럼 심각한 民族的 矛盾이 存在하는가?

심각한 「民族的矛盾」이 있기위해서는 첫째 「帝國主義勢力」으로부터 強力한 支配가 南韓에 있어야하며, 둘째로, 이와같은 기반이 國民들의 日常生活에서도 느낄수 있어서 國民들간에 不自由스러운 狀態에서 헤어나와야겠다는 움직임이 強力히 태동해야 될뿐만 아니라, 세계 그 不自由스러운 狀態는 造成한 原因이 바로 「帝國主義勢力」이라는 것을 國民들이 認知하여야만 할것이다.

北韓側의 論理에 의하면 南韓을 政治的 經濟的 軍事的으로 얽매어 놓는 帝國主義勢力이란 두말할 필요도 없어 美國과 日本인데 兩者中 美國을 主帝國主義, 日本을 從帝國主義로 보고있다. 北韓은 1965年 韓日國交正常化 以後 日本이 새로운 軍國主義로 南韓에 침투하기 始作한것은 主帝國主義勢力인 美國의 脚本에 의한것이라 보고 아직 까지도 南韓을 예속하고 있는 絶對的인 帝國主義勢力을 美國이라는 것이다. 美國을 이처럼 日本보다 더욱 비난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北韓을 國際적으로 孤立시키고 大韓民國에 대하여 계속,

軍事援助와 經濟援助를 해주는 張本人이 美國이라는 點도 있겠지만 「닉슨」의 中共訪問以後 日本이 北韓에 接近하는 理由로 크게 作用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이처럼 主帝國主義勢力인 美國과 大韓民國은 어떠한 民族的對立을 惹起하고 있는지부터 살펴 보기로 하자.

具體的인 「씨베이 데타」가 없어서 物的 確證은 提示할수는 없으나 美國에 對한 韓國民의 「이미지」는 그동안의 兩國間의 傳統的인 友好關係로 因하여 帝國主義勢力 또는 侵略者라는 觀念과는 正反對인 韓國을 日本으로부터 解放시켜준 나라, 共產侵略으로 韓國을 救出해준 友邦의 나라, 韓國을 戰爭의 폐허로 부터 復旧시켜준 나라라는 觀念이 絶對的이라고 斷言할수 있다. 따라서 美國에 對한 韓國民들의 느낌은 밍다는 感情, 보다는 오히려 고맙다는 感情으로 捉摸 되있다고 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友邦이 어느나라냐고 물을 경우 지금도 여전히 美國이라고들 대담한다. 韓國民들의 美國에 對한 一般的인 意識構造는 經濟, 國防과 같은 重要的 問題를 爲래히 美國이 解決해줄것으로 믿는 과잉 기대와 의존심이지 미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착취한다거나 이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처럼 國民들의 美國에 對한 의존심과 盲目的인 신뢰는 政府의 立場으로서는 하루 速히 拂拭하지 않으면 安穩 病弊로까지 느껴질 程度이다. 即 韓國의 指導者들에게는 國民들이 美國에 對하여 敵對感을 갖기는 커녕 오히려 과잉 신뢰를 하는데 問題點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點은 「아이로니칼」하게도 北韓共產主義者들이 南韓에서 「美帝國主義의 앞잡이들은 美

美帝主義와 被支配大衆들間에 침에 陷되어 가는 民族的矛盾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主張과는 正反對되는 現象인 것이다. 오히려  
美國과의 마찰은 - 비록 심각한 程度는 아니더라도 - 美國과 南韓  
의 大衆들 間에 있는것이 아니라 5.16以後 外交面에서 종전까  
지의 美國일변로 外交를 止揚하고 国内政治面에서도 「韓國實情에 맞  
는 韓國的 民主主義」를 主張하는 새로운 指導層과 存在하는 것이  
다.

勿論 이와같은 主張은 韓國民과 美國과에 조금도 마찰이 없었다  
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美軍機關에 종사하는 韓國人 勞務  
者들의 賃金引上要求라던지, 韓國人 慰安婦에 대한 美軍들의 非人道  
的인 行動等이 이따금 問題가 되고있다. 特히 知識人들의 美國에  
대한 態度는 훨씬 批判的임에 틀림없다.

그들은 「태프트」 桂太郎의 秘密協的이 보여주고 있듯이 美國은  
韓日合併에 있어서 道義的責任을 免할수 없으며, 朝鮮과 함께 南北  
分斷의 責任이 있으며, 解放以後 民族主義者들은 제쳐놓고 李承晚을  
後援함으로 因해서 日帝時代 親日派勢力이 다시 南韓의 政治와 行  
政을 장악하게된 과오를 저질렀으며, 經濟援助에 있어서 生産財보다  
消費財에 치중함으로서 自立經濟 確立에 큰 도움이 안되었으며, 美  
國이 이처럼 軍事援助 經濟援助를 하는 理由는 韓國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韓國이 赤化될경우 그에따른 亞細亞 다른地域別의 影響이 美  
國의 國家利益에 커다란 損失을 가져올것을 考慮한것에 不過하다等  
등의 論議로 一般國民들 보다는 冷情한 態度를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以上과 같은 마찰이나 批判은 極히 지엽적인것에 不過할뿐

韓美間의 民族的對立 (복괴式 표현에 의하자면 「民族的矛盾」)은 아니다.

1965年 韓日國交 正常化 以後 나날이 그 關係가 密接해가는 日本의 경우는 北韓이 말하는 「民族的矛盾」이라는 點과 關聯지어 볼때 다소 問題點이 있지않나 생각된다. 이 點은 뒤에서 民族主義의 側面에서 본 南韓의 脆弱點을 討論할때 자세히 言及하겠지만 美國과의 關係와 다른 點은 日本이 過去 韓日合邦을 通해서 36年間 韓民族을 支配하면서 오는 韓國人의 民族的感情, 그리고 現在의 韓日關係에서 經濟的實利를 추구하는 日本의 態度에서 主로 問題點이 若起된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現在까지의 經過로 볼때 韓日關係는 北韓쪽이 主張하는것 처럼 심각한 「民族的矛盾」으로 抬頭되고 있지는 않으며 앞으로는 政治的 經濟的 예측에 의한 民族的矛盾은 若起되리라 보여지지 않는다. 오히려 앞으로 韓國關係에서 緊張이 造成된다면 北韓이 主張하는 帝國主義 對 被壓迫民族의 民族的 矛盾이 아니라 主權國家 對 主權國家에서 오는 갈등이 될 것이다. 即, 現在 日本이 소위 그들의 實利外交라는 點에서 南北 等거리外交를 모색하고 있고 北韓에의 接近을 계속하고 있는바 이것이 계속될때 韓國은 官民이 一致하여 反日感情이 高潮되게 될 것이다. 이것은 韓日間의 마찰이긴 하나 主從關係에서 若起되는 民族的矛盾은 아니다. 다음으로 北韓共産主義者들이 말하는 南韓에 있어서의 階級的矛盾을 살펴보기로 하자.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 理論에 의하면 南韓에는 地主 매란자본가 官僚등의 支配階級과 勞働者, 農民 知識人, 學生, 小商人, 民族資本家, 愛國的軍人등의 被支配

階級間的 階級鬭爭이 激化되어 人民革命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革命勢力」인 後者들이 과연 소위 人民革命에 대하여 어떠한 反應과 어떠한 役割을 할수있는가를 보기로한다.

#### 1) 知識人 學生階層

共產主義者들은 知識人(여기서는 便宜上 學生들로 넓은 意味에서 知識人階級の 範圍에 包含함)들을 勤擾性이 많은 機會主義的 階級 小부르조와 根性을 갖인 反革命的 勢力이라 봄으로써 本質的으로 不信하고 있다. 이처럼 知識人들을 不信하는 理由는 우선 그들의 階級成分이 대개 「프로레타리아트」出身이 아니라는 點이요 둘째는 그들이 從事하는 일의 內容이 肉體的勞動이 아닌 다시말해서 物量的生産活動과 直接 關聯이 안되었을 뿐만아니라 觀念的이라는 點, 세째는 精神勞動에 從事하는 만큼 多分히 個人主義的이고 組織이 잘안된다는 點에 있다. 共產主義의 反知性主義(anti-intellectualism)에도 不拘하고 「아이로니칼」한 것은 共產主義運動에 있어서 一部 知識人의 役割은 어느 地域을 莫論하고 實際에 있어서는 커다란 比重을 차지한다는 點이다. ( 共產主義運動 뿐만아니라 모든 革命에 있어서 知識人이 主重한 役割을 한다고 하는 表現이 오히려 妥當할런지 모른다. )

日帝時代는 勿論 解放後 南韓에 있어서 左翼運動을 先導하고 組織한것은 젊은 知識人層이 었다. 이點에서 젊은 知識人들을 「革命의 先走者( forerunners of revolution)」이라고 본 Crane Brinton, Samuel Huntington/ Raymond Aran 等 革命研究家들의 見解는 韓國에 있어서는 例外가 아닌상 싶다. 14) 또한 이와같은



傾向은 日本과 中国의 경우에도 그대로 該當된다. 그러면 무엇이 많은 젊은 東洋知識人들로 하여금 共產主義思想에 물들게 하였는가?

Robert A. Scalapino 에 의하면 「 맑시즘-레닌이즘」이 東洋의 젊은 知識人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 맑스즘-레닌이즘」이 그들에게

가. 進步的理論 ( a prograssive theory)

나. 新民主主義 ( the new Democracy)

다. 國家建設의 技術 ( a technique of nationbuilding)

라. 신속한 近代化를 위한 科學 ( the science of rapid modernization)

마. 部分的으로 東洋의 傳統主義와 조화를 이루는 理念

바. 하나의 汎地域的 樂觀論的 哲學

사. 進步的 方法論

인것처럼 反影 되는 까닭이라고 하였다. <sup>15)</sup> 以上과 같은 主張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밝힌다는 것은 容易한 作業이 아니다. 다만 筆者가 Scalapino 의 見解를 引用하는 까닭은 위와같은 일곱가지의 要素가 韓國에 適用되는가 如否를 떠나서 다섯번째의 要素와 關聯된다고 보이는 東洋知識人의 社會參與觀을 약간 부연하고자함이다. 왜냐하면 知識人의 共產主義運動에의 參與는 分明히 社會參與의 一種이며 知識人의 社會參與가 活潑한 風土에서 知識人의 共產主義運動에의 參與 또한 활발 하겠기에서이다. 東洋知識人의 社會參與의 동기를 傳統的인 要素와 關聯하여 究明하는 것은 왜 韓國

의 大學生들이 政治에의 參與에 積極的인 態度를 나타내는가 하는 問題와도 관련될것이다.

東洋儒敎圈의 政治文化 (political culture) 는 「知識人의 政治 独占傾向」이라는 말로 要約될수 있을것 같다. 土農工商의 序列이 嚴存하는 전통사회에서는 敎育은 治者階級에 의하여 独占되었고 知識人의 最高의 目標인 君子는 學問을 통하여 터득한 「天理」를 實踐할수 있어야 만 되는것이다. 그런데 「天理」를 實踐하는 方法이란 바로 官職을 얻어 百姓을 다스리는 것이다. 結局 아무리 높은 直理를 터득해도 官職을 얻어 이를 實踐하지 않으면 君子가될수 없는 것이다. 16) 따라서 知識人의 政治參與는 - 비록 그 政治參與의 內容이 오늘날의 그것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 當然한 程度가 아니라 必須的인 것이었다. 實踐性이 있는 學問이란 곧 요즈음의 表現을 빌리자면 自然科學이 아니라 社會科學이다. 바로 이 點에 解放後에도 우수한 學生들이 自然科學이나 人文科學 보다 는 社會科學系列의 學科 即 政治學科 法學科 經濟學科 等に 몰려 들지 않았나 생각된다. 實踐的學問에 대한 傳統的인 強調가 時代가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남은 結果라 볼수있다.

東洋의 知識人의 特徵은 結局 自己의 知識이 무언가 社會를 爲하여 공헌이되어야 한다는 「使命意識 - 이 「使命意識은 無知한 百姓을 잘 다스려야할 義務가 있다는 전통사회 「엘리트즘」의 一種의 發展形態임에 틀림없는데 - 을 強調하는데 있다. 이 點에서 東洋의 知識人들은 西歐의 「인텔렉추알」 (intellectuals) 이라기 보다는 「러시아」의 「인텔리겐차」 (intelligentsia) 」

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參考로 Nicolas Berdgaev가 區別한 「인텔렉츄알」과 「인텔리겐차」와의 差異點은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西歐의 「인텔렉츄알」은 知的, 創造的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주로 教育을 받은 사람들, 作家, 藝術家, 教授, 教員等이다.

「러시아」의 「인텔리겐차」는 전혀 다르다. . .

많은 「러시아」의 학자나 작가들은 嚴格히 말해서 「인텔리겐차」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인텔리겐차」란 눈에 띄일 정도로 매우 엄격한 제나름데로의 倫理觀, 生에 대한 의무감등과 병행된 一元論的인 立場에 있는 사람들이다. . . . 「인텔리겐차」들은 항상 어떠한 思想 特히 社會思想을 가지며 그 實踐에 노력한다. . . . 한 「인텔리겐차」가 다윈주의자 (Darwinist) 가 됐다고 가정할때 그에게는 「다윈論은 討論의 余地가 있는 生物學理論이 아니라 「도그마」가 되며, 자신의 「도그마」를 받아드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道德的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17)

實際로 이와같은 태도는 中國과 日本 그리고 日帝下의 韓國에 있어서 1920年代에 初期의 共產主義運動을 이끈 젊은 知識人들 間에 흔히 찾아볼수 있다. 日本의 初期共產主義運動에 관한 한 研究書에 의하면 具利彦 山川均 大杉榮등 日本의 初期左翼들은 항상 「암시즘」에 대한 그들의 知識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며 “教師 (teacher) 或은 “宜教師 (Missionary)”와 같은 태도를 갖었다 한다. 18) 한편 1919年 בל란서로 떠나는 한 친구에게 毛沢東은 “나라를 救하기 爲해서 熱心히 工夫하라”고 당부하였는데 19) 이와같은 表現은 東洋에서는 흔히 쓰는 表現이나 西歐의 「인텔렉츄알」들에게는 이해가 가기 어려운 말이다.

以上으로 東洋의 知識인들이 西歐의 知識인들에 比하여 政治參與 및 社會運動參與에 보다 많은 素地를 갖일수있는 傳統的 要素에 關하여 說明하였거니와 韓國 知識인들의 추이는 점차 帝政「러시아」末期의 「인텔리겐차」型에서 西歐적인 「인텔렉추얼」型으로 移行해 가고있는 듯 하다. 이처럼 知識인의 性格이 變化해 가는 原因은

첫째로 韓國社會도 이제는 많이 多元化되어 學問과 知識도 보다 많이 專問化 細分化되 가는 傾向에 있음을 들수 있다. 卽 從來의 社會科學 一辺倒에서 自然科學分野로의 進出이 顯著해 진것이다. 같은 社會科學分野에서도 前에는 判檢事와 官僚職과 關聯된 學科에 大學進學者들이 몰려드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른分野 이룰때면 貿易 金融 企業經營等 事業과 關聯된 分野에도 경쟁이 심해 가고 있다.

社會指導者로서의 知識인으로 부터 專問的職業人으로서의 知識인으로 의 移行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結局 이것은 知識인의 個人主義化를 더욱 促進시킴을 意味한다. 그러나 이말은 모든 知識階級에 屬하는 사람들이 共產主義와 같은 全体主義思想을 全的으로 외면하리라는 것을 意味하지는 않는다. 지금까지는 大體로 韓國에서는 높은 教育水準을 갖춘 사람들이 社會進出에 있어서 有利하다는 이른바 높은 教育이 반드시 높은 社會적位置를 保障하지는 않지만 大體로는 保障한다는게 定說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되지 않을때 社會적으로 安定된 身分確立에 失敗한 知識인들은 그에 대한 反撥로 現體制를 否認하는 運動 卽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에 달려들 可能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一般的으로는 知識과 教育이 社会的 上向可動 (Social upward mobility) 의 絶對的 「바로미터」로 남는限 그리고 知識의 細分化와 專問化가 계속 進행되는限 大部分의 知識人들은 人民革命에 外面하리라 생각한다. 다만, 問題點이 있다면 學生層이 겠는데 뒤에 「政治的要因面에서 본 南韓의 脆弱點」에서 다시 자세히 言及하겠지만 그들의 젊은 年齡에서 오는 理想主義가 現實에 대하여 심한 갈등을 갖이게 되고 갈등에서 오는 不滿을 해소시킬 分출구가 政府에 의하여 마련되지 못할때 政府에 대한 反感에서 오는 反政府感情이 北傀에 利用될 可能性이 있다. 結論적으로 말해서 知識人階級에 屬하는 一部사람들이 急變해 가는 社會에 適應을 하지 못하여 그것이 個人的인 不滿으로 누적되거나 社会的인 不條理로 비칠때 反体制運動의 先走者의 役割을 하게 될것지만 全体的인 추세 면에서 볼때 知識人和 政治와의 關係는 많이 改善되리라 보인다. 知識人の 政治運動이 있다면 그것은 全体主義運動이라기 보다는 自由主義 個人主義 運動의 性格을 갖게 될것이다.

## 2) 勞務者

우리나라의 工場勞動者의 數는 우리나라의 工業化와 아울러 계속 增加되는 추세에 있다. 이점을 北韓에서는 머지않아 南韓에 있어서의 人民革命이 勞動者階級에 의하여 주도되고 급기야는 「프로레타리아트」獨裁를 爲한 혁명으로 갈것이라는 自己慰安的 解狀을 하고 1970年에 와서 人民革命戰略을 표방하고 나선 주요동기가 된 것 같다. 그러나 이와같은 생각은 앞에서도 지적했다. 시피 지금

까지 共產革命이 「맑스」의 생각과는 달리 勞動者의 數가 많은 先進工業國家에서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勞動者의 勢力이 弱한 後進國에서 일어난 事實이 證明하듯이 맞지않는 判斷인 것이다. 歷史的으로 考察할때 勞動者階層이 共產革命에 主要役割을 한 경우는, 「로시아」革命밖에 없는데 朝鮮의 경우만 하더라도 「볼셰빅」革命이 成功한 이유는 勞動者階層의 단독의 힘때문이 아니라 다른 階級, 特히 農民이 呼應했기 때문이며 보기에 따라서는 「레닌」의 政治的 戰略的기술에 힘을 입은 黨의 宜動과 操作 그리고 組織이 決定的 役割을 했다고 말할수 있을 것이다.

亞細亞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의 共產主義運動에 關한限 都市의 勞動者를 中心으로 한 共產主義運動은 全部 失敗를 하였다. 中國의 立은 路線이나 「말 레이지」 경우 그리고 심지어 解放以前 韓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運動이 바로 좋은 例이다. 後進國에 있어서 勞動者中心의 共產主義運動이 失敗하는 理由를 共產主義者들은 勞動者의 勢力이 後進國의 낮은 産業化때문에 弱하기 때문이라고 解釋하나<sup>20)</sup> 이와같은 結論은 「맑스」의 理論을 機械的으로 받아드린데서 나오는 結果인데 (事實 共產主義者들에게는 「맑스」의 理論을 기계적으로 받아드리지 않을수도 없다. 왜냐하면 勞動者에 대한 「맑스」의 見解를 받아드리지 않으면 共產主義의 基本的要素를 否認하는것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實際에 있어서 勞動者階級의 利害關係라던지 資本主義體制에 대한 反應은 共產主義者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그리 單純하지가 않다.

勞動者階層의 社會運動 乃至 共產主義運動에의 參與라는 問題는

그동안 많은 西歐의 學者들에 의하여 論難되어 왔다. 그 많은 研究를 일일이 소개할 수는 없고 「어떤 種類의 勞動者들이 더 共產主義運動에 呼應하는가」하는 문제와 關係해서 지금까지 進行되어 온 研究들의 主 內容을 列挙하면 大略 다음과 같다.

가. 賃金이 낮은 勞動者層에서 共產主義運動이 활발히 展開된다는 說

이 說은 소위 앞에서 「民族的矛盾」을 討論할때 잠깐 言及된바 있는 「不滿理論」과 關聯되는 것으로서 共產主義者들이 대개 이러한 說을 믿고 있다. 卽 賃金의 程度가 生存의 위협을 出 程度로 낮을때 勞動者들은 견디다 못해 들고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說은 實際에 있어서 많은 弱點과 맞지않는 實例가 있다. 첫째, 바로뒤에서 熟鍊, 非熟鍊勞動者들의 다른 反應에서 다시 言及되겠지만 대체로 賃金水準이 낮은 勞動者들이란 非熟鍊 勞動者는 한 職場에 머무르지 않고 돌아다니며 근육으로 일하는 自由勞動者(例, 지게꾼, 미쟁이, 구르마꾼等)들인데 이들은 우선 매일 매일의 生計문제가 너무나 切實하여 다른곳에 神經을 쓸 틈이 없는데다가 일터가 固定되어 있지않아 組織하기가 힘이든다. 따라서 無定形한 或은 「아노미」的(anomic) 反撓은 할 수 있으나 持續性이 있는 組織的運動은 할수없다.

나. 熟鍊工들 間에 共產主義運動이 活潑하다는 說

熟鍊工들은 各者 가지고 있는 技術때문에 한 職場에 오래 있어서 同僚들사이에 階級意識을 갖게되고 組織된 運動을 벌

릴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熟鍊工들은 非熟鍊工들 보다 賃金이 훨씬 높고 境遇에 따라서는 James Buruham이 말하는 新管理人階級 (New managerial class)<sup>21)</sup> 으로 進出하거나 小規模의 獨者的事業체로 獨立할수 있는 可能性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開發途上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와 같은 可能性이 큼) 資本主義體制에 對한 態度는 肯定的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아니면 바록 組織과 階級意識이 싹튼다 하더라도 英國에서 볼수 있는 바와 같이 體制의 轉복이라기 보다는 勞組活動을 통한 賃金引上이나 勞動條의 改善等 實際的인 문제에 鬪爭目標을 設定하게 된다.

다. 賃金이나 技術습득의 차이에 관계없이 孤立된 장소에서 일하는 勞動者들이 보다 共產主義에 敏感한 反應을 보인다는說이 說은 William Koruhauser 에 의하여 指摘된것인데, 鋸夫, 漁夫등 外部와의 접촉이 별로 없는 곳에서 일하는 勞動者들 가운데 共產主義의 감염이 크다는 것이다.<sup>22)</sup> 이 說이 主張하는 根拠는 「그들 [外部와 絶緣된 장소에서 일하는 勞動者들]을 外部사람들이 자기네의 지역을 落後된 地域으로 본다는 一種의 “集團的 劣等意識”을 갖기쉬우며 무시되고 있다는 感情에서 이와같은 反應을 取한다」고 하는 心理的說明에 있다.<sup>23)</sup>

以上の 세 가지 說은 全部 다 맞기도하고 안맞기도 한다. 이 말은 結局 세 가지 理論은 오직 部分的으로만 妥當性이 있음을 意味하며 이말은 勞動者階層의 具體的·反應은 具體的狀況에 따라 다를수있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收入과 共產主義에의 反應과를 一例로 든다



면 1956年 「핀란드」에서는 低所得 労働者 가운데 共産黨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1946年 「스웨덴」의 경우는 高所得労働者 (熟練노동자) 가운데 共産黨을 지지하는 수가 많았던 것이다. <sup>24)</sup>

한편 労働者들의 意識構造는 Seymour W. Lipset이 지적하는 것처럼 極左에서 부터 極右까지 있을수 있다. <sup>25)</sup> 一例로 보통 極右라고 規定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페론」정권은 労働者들로부터 많은 支持를 받았으며 그 때문에 「페론」은 군사 「쿠데타」로 인한 오랜 亡命生活끝에 1973年 다시 大統領으로 복귀될수 있었던 것이다. 以上으로 볼때 南韓의 急激한 産業化로 인한 労働者의 增加는 앞으로 많은 社会的 問題點을 가져 오리라 예상되나 그 때문에 南韓에 있어서 労働者主導의 人民革命이 可能하리라 보는 北韓의 見解는 그릇된 것이다. 大韓民國政府의 施策如何에 따라 韓國의 労働者階級은 反共의 강력한 前衛가 될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3) 農 民

後進國에 있어서 共産主義革命의 成功如否는 農民을 如何히 共産主義運動으로 動員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것은 人口의 大多數가 後進國에 있어서는 農民들이기 때문이다.

南韓의 경우, 農業人口의 數는 每年 줄어들어 1973年 10월 1日現在 14,644,500 명으로 前年度에 比하여 0.2%가 줄어들었으며 <sup>26)</sup>이 수자는 農業人口가 全体人口의 半이 못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農業人口의 減少現象은 工業化에 따른 不得已한 現象임으로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世界各國의 共通된 現象이며 同時에 바람직한 現象일 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른나라와 比較할 때 우리나라의 農業人口가 차지하는 比重은 کم에 틀림없다. 더욱이 都市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은 比較的 最近에 離農을 했거나 수

시로 農村에 있는 自己집을 往來하는 反農反勞의 性格을 가지고있으므로 農村의 狀況은 都市에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心理的 影響을 주고 반대로 農村에 있는 사람들도 都市로부터 前보다 훨씬 더 많은 消息과 往來로 말미암아 더 많은 影響을 받게되리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農村은 지금까지 貧困의 連續에서 살아왔다. 最近의 統計에 의하면 每戶口當 農家의 平均收入은 月 35,800원이라 하였는데<sup>27)</sup> 1971年現在 5 단보 未滿의 農地를 경작하는 農家의 比率은 全 농가의 37%, 小作農의 全体농가에 대한 비율은 21%, 小作兼 自作農이 42%나 차지 하기 때문에<sup>28)</sup> 영세 농가의 收入은 훨씬작은 金額에 不過할것이다. 이와같은 農家收入은 日帝時代에 小作農일 경우 1人當 1日 生計費로 12錢(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3센트)밖에 쓸수 없었던 것에<sup>29)</sup> 比하면 천양의 差가 있지만 農村에 있어서 社会的 不安을 造成하는 主原因이 되고있다. 營農技術의 育性 비로 종자등 營農資金의 引上 그리고 最近에 와서는 다른 産業分野와 比較할때 農業分野가 갖는 斜向性도 우리나라 農村이 貧困할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지만 이 보다도 根源的인 要因은 人口增加와 地主에 의한 土地점병에 따른 耕作面積의 縮少 即 農家의 영세성에 있다고 봐야 될것이다. 이들 두가지 原因中 特히 不在地主에 의한 토지점병은 最近에와서 小作農의 增加와 農家의 영세성을 促進하는 主原因이 됨이 確實한 것은 每年 全國人口는 증가되는 反面에 農村의 人口數가 줄어가는 現象에서도 알수 있다. 不在地主에 의한 農土의 점병문제는 뒤에 「地域的對立」이라는 項目에서 南韓의 團結을 저해하는 原因의 하나로서 다시 言及되겠지만 農村에서 신속히 해결되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大部分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農民들은 社會運動에 있어서 消極的이라서 늘 中央政府에 대하여 服從만 해오기 때문에 農村問題에 대하

여 별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것으로 생각하는것 같다. 그러나 이와같은 생각은 誤算이다. 우리나라 近代史에 나타난것만 하더라도 1862年의 慶尙南北道와 忠淸北道 一部를 中心으로 한 晉州民亂, 그以後로부터 1894年 東學亂이 일어날때까지의 全國各處에서의 小規模의, 그러나 빈발했던 農民들의 소요事件<sup>30)</sup> 1894-1895年의 東學亂<sup>31)</sup> 1906-1911년 사이의 義兵運動<sup>32)</sup> 1919년의 三一運動<sup>32)</sup>에서 農民들은 中央政府에 항거하였던 것이다. 三一運動以後에 있어서도 1920年代의 小作運動을 中心으로한 農民運動이 활발했었고 - 특히 1925年以前까지 1930年代에는 共產主義者들의 影響을 받아 심지어 赤色農民組合들이 組織되었었다. 筆者의 調査에 의하면 約 70個의 赤色農民組合이 全國各處에서 組織되었거나 組織中에 朝鮮總督府 警察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이를 赤色農組中 특히 咸鏡南北道の 赤色農組들은 規模, 組織, 活動의 過激性 그리고 持續性으로 볼때 다른地域의 赤色農組들을 단연 압도 하였다. 咸鏡南北道の境 週와는 비교가 안되지만 慶尙南道와 全羅南道도 共產主義에 의하여 農民들이 影響을 많이 받은 地域이며 共產黨의 農民침투가 가장어려웠던 地域은 忠淸南北道와 黃海道 그리고 平安南道였다. <sup>33)</sup>

이와같은 얘기를 하는 理由는 過去에 共產主義의 침투가 활발했던 地域이 앞으로도 그러리라는 것을 斷定하기 위한것이 아니고, 우리의農村도 共產主義, 특히 北傀의 人民革命戰略이 적용될수 있는 可能性이 尠히없지는 않다는것을 지적하기 爲한것이다. 그러면 어떠한 種類의 農民들이 共產主義에 比較的 쉽게影響을 받는가? 바로앞에서 勞働者階級과 關聯하여 討論한것 처럼 農民階級도 그具體內容에 들어가면 經濟的能力이나 各者의 利害關係가 各樣各色이므로 實질적으로 一般化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지금까지 農民의 共產主義運動과 關聯된 研究들에 있어서 農民의 共產主義에 대한 反應에는 대략 다음과 같은 見解들이 있다.

가. 共產主義運動은 貧農가운데에 活潑하다는 說

農民研究家들 中에 가장 많은 數가 이와같은 主張을 한다. 이 說은 또한 共產主義者들 間에는 普遍的인 定說이다. 即 共產主義者들은 農民에의 浸透에 있어서 農業勞動者와 山作農과 같은 貧農에 神經을 쓰며 이들을 農民組織의 核心으로 삼으려고 努力한다. 그러나 이 說은 「비엘남」의 「메콩」 三角洲나 印度의 「게릴라」같은 地域에 있어서는 잘 적용되는 것 같지만 어느 地域에서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普遍的 公理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中國과 日帝下의 韓國이 이 說이 맞지 않는 좋은 例일 것 같다. 即 Roy Hofheing Jr.는 1923年 부터 1945年사이의 中國에 있어서 縣을 單位로 農民의 經濟形便을 調査한 後 그것이 共產主義勢力의 침투와 어떠한 연관을 가졌는가를 考察하였는데 그가 내린 結論은 經濟적으로 더 어려운 地域이 반드시 더 活潑한 共產主義運動을 나타내지는 않았었다는 것이다.<sup>34</sup> 筆者의 1930年代 赤色農組運動에 관한 考察로 비슷한 結論을 가지고 있다. 即 앞에서도 간단히 言及했지만 農民들 間에 共產主義勢力이 가장 많이 浸透했던 지역은 全國 13道中 農家當 平均 耕作面積이 가장 작고, 小作人口가 가장 많고 小作料가 가장 비싸고 地主와 小作人과의 關係가 가장 나빴던 三南地方이 아니라 農家當 平均 耕作面積이 가장 넓고 全体 농가에 대한 自作農의 比率이 가장 높고 山作料가 가장 싸고 地主와 小作人과의 關係가 가장 좋았던 咸鏡南北道였다.

나. 共產主義運動은 中農 ( middle peasants ) 가운데에서 持續  
된다는 說

이 說은 앞에서 熟練勞動者들이 共產主義運動의 核心을 이  
룬다는 說과 비슷한 論理로써 貧農인 農業勞動者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머슴 ) 나 山作人들은 워낙 每日의 生計問題 解決에  
급급하다보니 다른것에 神經을 쓸틈이 없고 오직 多少 余裕  
가 있는 中農만이 共產主義運動을 持續할 수 있다는 것이다.  
即 農業勞動者나 小作農은 여차적 하면 都市로 移住해 버리  
고 農土와의 因緣을 끊어 버리기 때문에 農村에 있어서 계  
속 共產主義運動 ( 또는 다른 農民運動 ) 을 할 勢刀이란 結局  
조그만 農土를 소유한 自作農들이라는 것이다. 35)

다. 共產主義運動은 변두리地域에 있는 農民間에 더욱 오래 지  
속한다는 說

이 說은 바로 위의 說과 마찬가지로 Erir Wolf에 의하  
여, 主張되었다. 36) 이 說은 뒤에 南韓의 強点を 論議할때  
「 強刀한 行政刀 」 이라는 項目에서 再論되겠지만 한마디로 포  
현한다면 農民蜂起와 中央政府의 行政刀의 정도와는 밀접한  
關係가 있음을 나타낸다. 即 共產主義가 變두리地域  
( Perijheral area ) 에 있는 農民들에게 더욱 쉽게 浸透  
하는 이유는 變두리地域은 中央의 行政刀이 比較的 弱하게  
미치고 中央으로 부터의 惠沢도 比較的 덜 作用하는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以上 세가지 說은 全部 一理가 있는데 첫째說과 둘째說은 正面으로 對立되는 說이다. 著者의 見解로는 둘째說 보다는 첫째說이 보다 보편성이 있는것 같다.

即 비록 經濟的 貧困이 革命을 惹起하는 充分條件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必要條件은 능히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後進國에 있어서 人口의 커다란 部分을 養育하는 農民이 貧困할때 全体社會는 不安定해 질 것이고 社會的 不安定은 尙왕 共產主義革命으로 進行되는 原因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經濟的으로 더욱 貧困한 地域이 더 積極적인 共產主義에로의 反應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는 뒤에서도 言及하겠지만 다른要因, 即 經濟外的 要因이 經濟的 要因보다 強力하게 작용하는 이유에서 이다. 한 例로 1930年代에 있어서 咸鏡南北道가 가장 強力한 農民共產主義運動을 보였던 主要因은 行政的으로 中央의 權力이 덜 미치는 邊두리 地域이라는 點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朝鮮의 沿海州와 滿州에 있어서 共產主義運動이 가장 활발했던 東滿州地域과 接한 咸鏡道の 地理的位置, 때문이었다고 믿어진다.

以上으로써 南韓에 있어서 人民革命을 이끌(?) 革命勢力中에서 知識人(學生包含), 勞動者와 農民等 세 階級의 性格을 간략히 檢討하였거니와 나머지 小「부르조와지」(山商人), 民族 資本家, 그리고 愛國的인 軍人에 대한 討論은 紙面關係上 略하기로 한다. 다만 두어마디 덜 부친다면 첫째, 小商人과 民族資本家階級이 人民革命에 呼應할 可能性은 極히 희박하다는것 둘째, 北韓이 1970年

人民革命戰略으로 對南戰略의 名稱을 바꾸면서 可能한 合勢勢力에 「愛國的軍人」을 追加한 것은 共產分子에 의한 軍事 「쿠데타」나 麗順反亂事件과 같은 事態가 南韓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意圖에서 옳을거라고 하는 點이다. 그러면 自体評価로서 大韓民國은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에 當面하여 어떠한 脆弱點과 強點을 갖고 있는가를 檢討하기로 하자. 討論展開의 便宜上 우선 強點부터 考察하기로 한다.

## B. 人民革命戰略에 對處할 南韓의 強點

### 1) 強刀한 反共意識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이 즉각적으로 부딪치는 장벽은 南韓의 強刀한 反共意識이다. 더군다나 南韓의 反共意識은 推想的인 것이 아니라 6.25를 通하여 國民들이 몸소 체험한데서 나온 것이고 特히 500萬 越南同胞들의 共產體制에 대한 체험은 南韓의 反共意識形成에 主要한 要素가 되고 있다. 韓國動亂時 慶尙道를 除外한 南韓의 全地域이 共產軍에 의하여 占領됨으로써 지금 현재 35歲 以上の 南韓國民의 大部分은 共產體制가 어떤것인가를 直接 目擊하였다.

戰爭 도발자로서의 北韓은 힘에 겨운 戰爭을 遂行하자니 本來의 과격성 이외에도 여러가지 무리한 조치와 非人道的인 행위를 하였으며 그 結果는 占領地 南韓國民들에게 共產黨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갖도록 만들었다.

한편 南韓으로 넘어온 越南民들 중에는 北韓측이 主張하는것 처럼 日帝時代 親日派로 反民族行爲 혹은 기타 범죄행위를 한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大部分이 모든 財産을 포기하고 심지어 家族까지 남겨놓고 自由를 選擇한 사람들이며 이러한 面은 解放直後보다 6.25 당시 國軍이 北韓으로 부터 철수할때 越南한 사람들 가운데 더욱 농후한 것이다. 南北의 思想的對立과 관련하여 韓國 動亂이 招來한 또 하나의 結果는 動亂을 通하여 南韓에 있던 左翼勢力은 共產軍의 敗走를 따라 以北으로 가고 北韓에 있던 右翼人士들은 北韓으로 부터 UN軍 철수時 以南으로 내려온 點이다.

그 結果 動亂은 南北韓을 莫論하고 思想的 自体整備의 한 契機를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南韓의 反共態勢가 뒤에서 理念的 側面에서 다시 言及되겠지만 固武性을 아직 脫皮 못하였다는 弱點은 있으나 如何한 體驗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點에서 越南과 같은 事態는 일어나기는 어려운 것이다.

大韓民國에 있어서 또하나 重要한 反共의 源泉은 宗教이다. 特히 基督教은 日帝時代부터 強力한 反共勢力으로서의 役割을 하여왔다. 宗教가 反共의 主要役割을 한 實証은 1930年代의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들 수 있다. 筆者의 研究에 의하면 基督教과 天道教의 勢力이 컸던 平安南北道, 基督教勢力이 컸던 黃海道와 慶尙北道, 그리고 類似宗教가 많았던 忠淸南道는 共產主義의 農民浸透의 結果로 나타난 赤色農民組合의 組織이 不振하였었다.<sup>37)</sup> 儒教는 教會라 할만한 것이 없어서 對外的으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우리 社會에 미친 影響때문에 우리 민족의 精神界와 文化,



風俗, 價値觀의 主要內容을 이루어 왔다. 勿論 우리의 유교적 傳統은 그동안 많이 깨어져 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리라고 생각되나 아직도 地方에서는 유교적 傳統이 갖는 힘을 무시 못한다.

同族部落일 경우엔 더욱 그러하다.

地主와 小作人과의 關係가 宗家와 작은집, 고용주와 피고용인과의 관계가 父子之間의 關係로 흔히 비유되는 것은 資本主義의 하나의 極단인 金權萬能主義를 다소 억제하고 社會的團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며 따라서 人民革命戰略이 追求하는 南韓社會의 分裂에 對立되는 役割을 하는 것이다.

## 2) 民族的 同質性 (racial homogeneity)

南韓의 國民은 하나의 民族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것은 너무나 當然한 事實이라서 이러한 事實이 갖는 意味는 별 생각없이 지나쳐 버려지는게 보통인데 共產主義運動의 比較研究面에서 볼때 하나의 民族, 하나의 言語가 갖는 意味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共產主義者들은 共產主義革命은 人種이나 民族의 差異가 아닌 階級의 差異때문에 일어난다고 하지만 실제 여러나라의 경우를 考察할때 人種的(或은 民族的) 差異가 共產主義運動에 미치는 影響은 莫大하기 때문이다. 例를 들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타일랜드」 등의 경우를 보면 少數民族이 共產主義運動을 多數民族에 대한 저항운동으로 展開하고 있는 面이 많다. 이 점은 美國이나 英國에서도 마찬가지다. 美國의 경우 戰鬪的인 黑人들 中에 共產主義者들이 많은데 階級鬪爭인지 人種鬪

爭인지 判별키 困難하며 英國의 경우는 共産黨의 核心「멤버」中에는 유대인과 「아이리쉬」가 多數를 占한다.

따라서 南韓의 諸般條件이 위에 지적한 東南亞의 어떤나라와 비슷해진다 하더라도 南韓에서 共産主義運動이 일어나리라고 想定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왜냐하면 東南亞 共産主義運動의 主要 要因의 하나인 多數民族의 共在가 大韓民國에는 없기 때문이다.

### 3) 地域의 협소성

위에서 農民問題를 言及할때 지적 했듯이 땅은 좁은데 人口는 계속 증가 하는데서 여러가지 문제點(例를 들면 農家の 영세·생·같은것)이 생기는 반면 좁은 國土는 어느면에서 보면 共産革命을 막는 重要 역할도 한다. 이 점은 바로 뒤의 「強力한 行政力」이라는 點과도 連結되는데 좁은 땅에서는 毛沢東이가 國府軍에 쫓겨서 行한 「万里長征」을 할 수 없는 것이다. 毛沢東이가 共産革命을 成功으로 이끈 때에는 여러가지 要因들이 作用해서임은 틀림없지만은 무엇보다 重要한 事實은 國府軍의 힘이 잘 막치지 못하는 西安에다 後方基地(rear area)를 設定해놓고 自体整備와 아울러 機會를 노릴수 있게 만든 中國大陸의 광활성에 있다고 보여진다. 金日成이가 北韓을 「革命基地」로 規定하고 決定的 時期가 오면 南韓의 人民革命力量을 지원할 것이라고 한 말은 北韓을 中國에서 毛沢東이가 한것처럼 韓半島 共産革命의 後方基地로 使用 하겠다는 意圖가 多分한데 이것은 誤算이다. 그 理由는 첫째, 金日成이가 毛沢東의 後方基地理論을 機械的으로 받아들여 南侵을 할

경우 이것은 곧 美·蘇·中·日이 介入될 一種의 國家對 國家間的 戰爭이 되기 때문이다. 卽 毛沢東의 後方基地는 內亂을 하기爲한 것이었으며 休戰線으로 표시가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結局 어 말은 後方基地는 國內에 있어야만 의의가 있음을 말한다.

둘째, 北韓이, 南韓革命의 後方基地가 되기에는 너무나 거리가 가깝다. 勿論 거리라는 것은 相對的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적어도 中國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것 처럼 後방기지가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切實적인 攻勢전략에 있어야 하는데 北韓이 南韓을 쉽게 상처를 입힐수 있는것 처럼 南韓도 北韓을 쉽게 상처를 입힐수 있을만큼 서로가 密着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論議는 좁은 地域에서는 共產革命이 全然 不可能하다 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큐바」는 좁은 地域에서 共產革命 成功한 좋은 예이기 때문이다.

大韓民國의 지역적 협소성이 人民革命戰略에 불리하다는 말은 現 南韓의 反共力量(行政力量)에 比해서 共產革命이 成功하기에는 地域이 너무나 좁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事實 「큐바」의 경우가 보여주는것 처럼 地域은 좁고 政府의 反革命能力 卽 行政力은 極度로 弱할때 共產化는 오히려 더 쉬운 것이다.

#### 4) 強力한 行政力

Samuel Huntington에 의하면 政府는 다스리기 위하여 있는 것이다.<sup>38)</sup> 卽 行政力이 弱한 政府는 오래가지 못한다. 行政力의 測定은 行政力의 行使에서 나오는 物量的結果(例를들면 道路확

장, 資源의 分配 같은것) 或은 變化와 政治的安定에 所要되는 努力 (Cost) 과의 比率로 할 수 있다. 따라서 行政力과 安定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5.16以後, 大韓民國政府 施策의 基本標題는 「安定속에 번영」이라는 것으로서 行政에 의한 近代化를 추구해 왔다. 安定이 곧 번영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安定없이 번영은 이룩되지 않는다는 命題에 기초를 둔 方針이었다.

韓國에서 政府가 強力한 行政力을 갖일수 있는 바탕은 權威主義的인 傳統文化일 것이다. 이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官僚主義思想 官尊民卑思想에서 나오는 結果라고도 할 수 있으나 問題는 權威主義的인 要素는 指導者들이 如何히 活用하느냐에 따라 그 結果는 좋을수도 있고 나쁠수도 있는 것이다. 日本이 明治維新以來 急激한 近代化를 推進하면서도 社会的, 政治的 安定을 유지할 수 있었던 主原因은 政府가 지시하는 일에 순응하고 어려움을 찾아낸 國民들의 協調에 있으며 이러한 國民들의 協調를 可能케한 것은 바로 權威主義的인 傳統文化였던 것이다.

5.16以後 強化된 政府의 行政力은 우선 全國土의 범위를 相對的인 意味에서 축소시켜 놓았다. 이제는 山間僻地나 멀리떨어진 작은섬에서 일어나는 일도 전보다 훨씬 빨리 政府에서 파악할 수 있으며 政府의 施策은 즉각적으로 各地方의 面·리에 下達되며 감득된다.

Karl Deutsch에 의하면 한나라가 진정한 의미에서 統合團結되기 위해서는 中央과 地方과의 긴밀한 접촉 (Communication) 을

前提로 하며 긴밀한 접촉에서 民族主義는 形成 成長된다고 하였는데 39) 바로 이점에서 볼때 5.16以後의 南韓은 歷史上 어느때보다도 團合된 狀態가 되어 있는 것이다. 東西와 南北으로 달리는 高速道路는 1日生活圈이라는 말이 나올 程度로 地方民들에게 孤立되었다거나 疎外되었다는 感覺을 없애주고 있다.

歷史的으로 볼때 民亂은 대개 중앙정부와는 거리가 먼 변두리에서 일어났다. 晉州民亂이 그랬고 東學亂도 마찬가지이다. 中央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民亂이 나는 경향은 비단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Erir Walf가 지적했듯이 다른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930年代의 赤色農民組合만 하더라도 주로 서울과 멀리 떨어진 咸鏡南北道の 東海 沿岸地域, 江原道の 東海연안, 慶尙南道와 全羅南道の 海岸 島嶼에서 組織되었으며 解放後에도 麗順暴亂事件, 濟州道暴動事件등은 中央의 行政力이 미치는 程度와 地方民의 反中央政府蜂起와는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5.16以後 政府의 新經網이라고 할 수 있는 交通 通信 施設의 擴張과 「새마을 운동」組織, 郷土予備軍組織에 의하여 강화된 行政은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에 遂行에 致命的 障礙物이 될 것이다.

##### 5) 國防力

南韓의 國防力은 北韓을 圧倒적으로 능가하지는 못하지만 最小限 均衡은 이루고 있기 때문에 北韓의 南侵은 勿論 北韓이 노

리는 유격전은 防止할 수 있다.

더군다나 越南에 參戰하여 얻은 實戰經驗은 休戰以後 오랜 時日을 거침으로 해서 어느面에서 이완되었던 戰鬪태세를 공고히 하는 부수적인 効果도 가져왔던 것이다. 特히 越南戰의 性質이 半유격전이므로 越南參戰에서 얻은 經驗은 北韓이 노리는 유격전을 미리 실제로 겪어 보았다는 点에서 意義가 있다.

#### 6.) 經濟發展

1960年代에 急速히 發展한 南韓의 經濟는 大韓民國의 国力을 높은 水準에로 올렸음은 물론 對内外 對北面에서 여러가지 유리한 結果를 가져왔다. 첫째 對內的으로 보면 우리도 노력하면 잘살수 있다는 自信心을 國民들에게 줌으로써 國民總和를 가져왔으며 그동안 貧困의 연속으로 國民들간에 자칫 現經濟制度의 장점에 회의를 느끼게 할 수 있었는데 1960年代의 경제발전은 이러한 懷疑를 國民間에 完全히 불식시키고 일할 의욕을 高揚시키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心理的 効果는 對北面에서 重要한 意義를 갖는 것이다. 卽 創意와 意慾을 強調하는 資本主義의 經濟制度는 強要에 의한 共產主義 經濟制度보다 훨씬 더 많은 能率과 經濟成長을 가져올 수 있다는 確信을 國民들에게 주게 되었다.

對外的으로도 韓國이 늘 美國에 經濟적으로 依存하는 나라라는 印象을 없애므로서 韓國의 國際的인 位置를 크게 높히게 되었다.

南北對話가 열린 이후 北傀쪽에서 가장 당황한것은 서울에 와

서 南韓의 經濟狀態를 直接 目擊하고나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南韓을 美國에 經濟的으로 壓속된 植民地로 規定해왔던 것이 얼마나 實際와는 다른 判斷에 의한 것이었나를 認識하지 않을수 없게 된 데 있는것 같다.

그동안 계속되온 南韓의 經濟成長은 南韓에 있어서의 自中之亂을 획책하는 人民革命戰略을 좌절시킬 主要因子로 作用할 것임에는 틀림없다.

以上으로 大韓民國이 가지고 있는 強점을 간단히 要約하였거니와 그러면 과연 어떠한 脆弱점을 또한 가지고 있는가를,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本稿의 目的이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에 對備하기 위한 것이므로 可及的 조그만한 脆弱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指摘해야될 必要性을 느끼기 때문에 強점을 기술할때 보다 論調가 신랄해 질것임을 미리 부연해 둔다.

## C. 大韓民國의 脆弱점

### 1) 理念的側面에서 본 脆弱점

現代社會에 있어서 理念이 갖는 機能과 아울러 과연 이념이 必要한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論難이 많다. 「脱理念化 (deideologization)」論이 그 代表的인 例이다. 西歐的 民主体制의 代表가 되는 美國의 경우, 그 社會에 崇拜하고 있는 「프로그래머즘」과 「다윈」주의적 要素때문에 이념 (ideology) 이라는 말 自

体를 대체로 「도그마」나 觀念主義 非現實主義와 同一視 하리만큼 이념이란 말은 무대접을 받고 있다. 이와같은 傾向은 一部 政治學者나 社會學者들간에 「이념의 終末論」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論議의 理論的 根拠는 소위 「脫工業社會 ( post-industrial society )」로 들어가는 선진국의 現代社會의 特稱을 ① 高度의 국민소득 수준 ② 새로운 經營中間階層의 대거 出現 ③ 增加된 人口와 專門職業의 數 및 增加된 社會의 流動性에 起因한 機能的 「엘리트」의 出現과 道德的基準의 變化 ④ 增加된 高等教育에의 機會 ⑤ 專門知識에 의거한 熟鍊工의 增加에 따른 非熟鍊工의 相對的 減少를 들므로써 左翼과 右翼間의 對立을 推過해온 根本的 要因이 크게 中和 乃至 解消되고 있음을 지적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Leon Epstein과 같은 사람은 歐羅巴에 있어서 大衆의 利益과 權益옹호를 표방하고 出現한 이념政黨과 이에 다른 保守對革新의 政黨制度가 美國의 保守兩黨制보다 더욱 民主的이며 近代的인 政黨制度라고 하는 見解 ( 예를 들면 Maurice Duverger 같은 사람의 見解 )는 틀린 것이며 美國의 政黨制가 歐羅巴의 그것보다 오히려 더욱 近代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sup>40)</sup> 심지어 黨員相互間의 公高한 團結과 嚴格한 訓練을 強調하는 이념정당들은 「妥協」을 根幹으로하는 民主主義의 效果的 運營에 오히려 障礙요소가 된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41)

그러나 이와같은 論議는 經濟構造의 細分化와 專門化, 그리고 이에 따른 人間關係의 移散化, 理念面에서의 多元化, 階級의 解体가 促進되고 있는 先進國에 該當되는 것이고 後進國의 경우는 如前히



「이데올로기」가 重要한 役割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理由는 「이데올로기」는 다음과 같은 機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 이념은 世界觀을 提供한다.

나. 理念은 社会成員間의 行動에 대하여 理解의 尺度를 마련해 준다.

다. 理念은 個個人의 行動에 道德的基準을 設定해 준다.

라. 理念은 한 社会가 志向하는 方向을 제시해 준다.

마. 이념은 民族的 또는 社会的團結을 위한 토대를 제공해준다.

바. 理念은 社会的動員의 重要한 手段이 된다.

따라서 共產주의가 비록 時代착오적인 「도그마」이던 억지이던간에 그것으로 무장되고 새로 자라나는 世代에 계속 洗腦를 하는 北韓과 싸워야 할 大韓民國으로서는 自己나름 대로 확고한 理念의 確立이 시급하지 않을수 없다.

5.16 以後 南韓에서는 그동안 시도해본 西歐的 自由民主主義가 韓國의 實情에 안맞는 要素가 너무나 많아 이를 「韓國的民主主義」로 改編해야 되겠다는 論議를 많이 해왔다. 그리하여 「民族的民主主義」나 「行政的民主主義」나 「韓國的民主主義」나 하는 말들이 자주 부각되는데 内容에 있어서 「이러한」 民主主義들이 과연 西歐的 「自由民主主義」와 如何히 다른지가 分明치 않다.

事實 우리 政治文化는 西歐的 自由民主主義가 제대로 活用될 수 없는 要素가 많다. 自由를 표방하고 나서는 이면에는 社会일부에 存在하는 多元主義的 要素를 反影안시킬 도리가 없어서 그렇게 되는 이유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직도 權威主義的 要素가 너

무도 많은 것이다. 이와같은 政治文化의 二重性은 新世代와 旧世代의 世代間의 갈등으로도 나타나고 점차적으로 증가되는 政治的 無關心과 「아노미」적 病弊(例를들면 銃擊事件 같은것)로 나타나는 것이다.

最近에 와서 理念的 武裝을 爲하여 「維新精神」이 強調되고 있다. 그러나 「維新」이라는 것도 아직까지는 개연성의 段階에 머무르고 있지 國民個人的 日常生活에 直結되는 精神的 基準으로서의 具體性이 欠如되고 있는 것이다.

生活의 尺度와 規範으로서 「維新精神」이 實體性을 갖기 위해서는 理論的體系도 갖추어져야 될 것이다. 막연한 段階에서 구체적이며 實効性있는 精神的 求心點을 早速히 確立하는 作業은 對共闘爭에 있어서 必須不可欠의 要素이다. 이 점에서 南韓은 分明히 不利한 立場에 있다.

## 2) 政治的側面에서 본 脆弱點

政治的 側面에서 본 南韓의 脆弱點은 방금 言及한 理念的 要素와 直結되는 문제인데 한마디로 要約한다면 韓國이 對共闘爭을 하는데 있어서 「政治的 自由」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는 問題에 있어서 아직까지 國內적으로 合意를 보지 못한데서 惹起되는 脆弱點인 것이다. 卽 지금까지 南韓의 團結을 阻害하는 政治的 分界 或은 亀裂(Cleavage)은 두가지 立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政治的 自由 固守論」이요 또 하나는 「政治的 自由 制限論」이다.

「政治的 自由 固守論」이 내거는 主張의 主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南韓에 있어서 政治的 自由는 如何한 경우에도 保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共產主義를 反對하는 主要原因은 自由를 爲한 것인데 自由를 制限하면서까지 共產主義를 反對한다는 것은 矛盾되기 때문이다.

나. 反共이라는 명목으로 自由의 制限이 正当化될때 自由의 制限은 反共을 爲해서 使用되기 前에 한 執權黨의 執權을 永久化하는 手段으로 使用될 것이다.

다. 反共을 하는 最上의 方法은 韓國에서 自由民主主義의 꽃을 피워서 自由民主主義의 強점을 國民들에게 體質化 시키는 것이며 우리가 自由民主主義를 固守할때 友邦의 支援은 계속될 것이다.

한편 「政治的 自由 制限論」이 내거는 主張의 主要 根拠는

가. 效果的인 對共鬪爭을 爲해서는 政治的 自由는 部分的으로 制限되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지금 準戰時 狀況下에 있다. 政治的 自由는 平和時代에만 그 實効를 거둘수 있는 것이다.

나. 5.16 革命이 일어날때까지 우리나라의 政治史가 보여 주었듯이 우리나라는 西歐 先進國과는 달라 社會的, 經濟的, 文化的 그리고 南北分斷의 特殊條件 때문에 政治的 自由는 오히려 社會的 混亂만 초래하였다. 自由民主主義가 제대로 꽃피기 위해서는 自由民主主義를 이룩할 수 있는 밑바탕이 成熟되어야 하며 그 밑바탕을 하루速히 成熟시키기 위해서는 完全한 政治的 自由는 當分間은 留保될 수밖에 없다.

다. 反共을 하는 最上의 方法은 우리가 急速한 經濟成長을 이  
록하여 国力面에서 北韓을 압도하는 도리밖에 없다. 그런데  
急速한 經濟成長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強力한 政府의 指導力  
을 必要로 하며 強力한 政府의 指導力을 위해서는 政治的自  
由의 部分的 制限이 不可避하다.

以上이 두가지 立場의 要約인데 現在로서는 政治的自自由 制限論이  
既定事實化되어 있으나 韓國政府가 自由民主主義의 포기를 뚜렷하게  
公表하지 않는 限, - 事實 現在로서는 公表할 수도 없다 - 政治的自  
由의 固守論은 계속해서 抬頭될 것이고 이 「이슈」는 南韓의 政  
局 乃至 社会的 不安의 主要因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反政府運動  
- 政府는 「反體制運動」이라는 表現을 쓰고 있으나 이것은 正確한  
表現이 아니다 - 의 주축을 이루는 社會勢力은 主로 知識人, 言論人  
學生들로서 아직까지는 商人, 勞動者, 農民階層에서는 「反制限論」運  
動에 別反應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知識人, 學生, 言論人들의 社  
會的位置가 갖는 影響力때문에 政治的 自由固守論이 계속 머리를  
들고 일어날때 余他 社會勢力도 계속 냉담한 反應을 보이리라는  
保障은 없다. 万一에 政府에서 「固守論」에 대한 彈壓의 정도를  
증가시킬 경우에는 反政府運動은 잘못하다간 정말로 그 一部는 反  
體制運動의 方向으로 갈 위험성도 없지 않다. 南韓内部의 이와같은  
政治的 分裂은 對共자세에 不利하면 不利하였지 조금도 이로울것이  
없다. 실제로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은 理由와 內容의 如何를 不問,  
南韓 社會의 分裂助張을 그 一次的目標로 하는만큼 政治的 自由의  
「固守論」 對 「制限論」의 對立은 現時點에 있어서 北韓의 對南

人民革命戰略에 대한 제일 큰南韓의 脆弱點으로 보여진다.

### 3) 社会的 側面에서 본 脆弱點

南韓의 社会的 病弊로 흔히 不正과 腐敗, 허영, 사치, 浪費, 不信風潮, 金錢万能主義 등이 列挙되고 있다. 이러한 병폐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가를 糾明하기는 간단한 作業이 아니지만<sup>42)</sup>

Edward C. Banfield 가 말하는 「非道德的 家族主義 (amoral familist) 와<sup>43)</sup> Gunnar Myrdal 이 말하는 「柔軟國家 (the Soft State) 」의<sup>44)</sup> 要素가 多分하여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을 有利하게 해주는 南韓의 弱點이 아닐 수 없다.

특히 最近의 朴永復事件이 보여주는 것처럼 大部分의 커다란 不正이 權力과 結付된 「權力型不正」<sup>45)</sup> 이라는 點에서 國民의 政府에 대한 不信이 더욱 조장될 우려성이 있으며 이점은 官民이간을 疏隔하는 北傀의 人民革命戰略에 이용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

### 4) 經濟的側面에서 본 脆弱點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같이 1960年代에 있어서 南韓의 經濟發展은 실로 驚愕할 만한 것으로 以北과의 競爭에 있어서 南韓의 위치를 公高하게 하였음에는 두말할 余地가 없다. 每年 增加하는 輸出高는 매우 高무적이지만 다만 貿易에 있어서 輸出高를 높이는 그 배후에는 南韓의 저렴한 貨金이 중요한 作用을 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이것은 國際市場에서 競爭하기 위해서는 價格이 저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生産原價에 있어서 貨金を 많이 支拂할 수 없는 매우 간단한 經濟原則에서 나오는 結果라 하겠다.

經濟的側面에서 본 南韓의 脆弱點은 所得分配의 격차에서 오는 貧富의 격차에 있다. 勞動者나 農民의 過激主義 (radicalism) 는 이미 言及한 바와 같이 반드시 貧困의 度와 正比例하는 것은 아니지만 貧富의 差異가 너무나 클때 하나의 不滿으로서 階級意識의 形成을 促進시킬수 있는 것이다. 結局 經濟成長 그 自体만 가지고서는 經濟的 不安을 해소시킨다고 볼수는 없을것 같다.

經濟形便과 關聯하여 革命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는 問題에 대하여서는 說이 一定치 않다. 典型的 「맑시스트」理論에 의하면 革命은 經濟事情이 계속 惡化될때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 說에 의하면 韓國의 경우는 人民革命戰略이 적용될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Crane Brinton 은 「러시아」革命이 「러시아」의 경제가 극도의 침체에 빠졌을때 發生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격한 成長의 過程에서 일어났음을 밝혀 넘으로써 「맑시스트」의 見解가 틀렸음을 指摘하였고 46) Brinton의 見解는 Seymour Lipset 로 같은 意見을 가지고 있다. 47) 한편 James Davies 는 革命은 오래 계속된 經濟발전이 갑자기 잠깐동안 後退할때 일어난다고 主張한다. 48) 萬一에 Davies의 主張이 맞다면 앞으로 다시 油類과 동 原料과 동으로 韓國의 경제가 一時的으로나마 後退할때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이 맞아들어가는 때가 될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假定이고 Davies의 說이 어느 경우나 맞는 一般理論으로서 証明된 것은 아니다. 다만 確實한 것은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後退는 지속적인 經濟發展보다는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는 것이다.

다시 貧富의 差의 問題로 되돌아가서 未確認된 一說에 依하면 南韓에 있어서 上位 20%의 平均 國民所得과 下位 20%의 國民所得의 比率은 15對1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事實이라면 심각한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工場勞動者의 平均賃金이 國際 平均 勞動者賃金의 約 8分之一밖에 안됨으로 위의 統計는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나 思料된다. 昨年에 나온 國稅庁의 發表에 의하면 月 8,000원 以下所得의 戶口數는 全体戶口의 約 25「퍼센트」에 該當된다고 하였으므로<sup>(49)</sup> 南韓에 있어서 所得의 分配問題는 점차 더욱 심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全体的으로 나타난 經濟成長만 가지고서 南韓이 安心할 代價는 못된다. 왜냐하면 社會的 安定이라는 點으로 보면 經濟成長이 반드시 社會安定을 保障하지 않기 때문이다.

全体的으로 못 살아도 貧富의 差가 심하지 않으면 “없는 者와 있는 者간의 갈등이 없어서 社會는 오히려 安定을 유지할 수가 있고 全体的으로 前보다 生活形便이 많이 向上되었다. 하더라도 貧富의 差가 심하면 없는者와 있는者간에 갈등과 對立이 격화되어 社會的 不安定이 造成된다. Samuel Huntington 은 「가난한 나라들에 있어서 社會的 不安定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난하다는 이유에서 不安定해 지는 것이 아니고 富해 지려고 努力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sup>50)</sup> 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위에 말한것과 一致하는 意見이다.

現在 勞動爭議는 政府에 의하여 嚴格히 규제되고 있다. 그런데 問題는 政治에 의하여 勞動者의 처우문제라던가 勞動時間 勞動條件

等에 關하여 고용인들에 對한 계속적인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누적된 不滿은 자칫 잘못하다간 暴力을 隨伴한 불상사로 폭발할  
可能性이 없지 않다. Ralf Dahrendorf 는 革命을 防止하는 最  
上의 方法을 階層間의 對立을 合法的인 中間團體에 의하여 表面  
化 시킴으로써 不滿의 누적에 의한 暴力化를 막는 것이라고 하였  
다. 이때에 中間단체는 階級間의 對立과 不滿을 排出시키는 안전弁  
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51)

現在 韓國의 경우는 政府가 바로 이 안전弁의 役割을 하고 있  
고 앞으로도 계속해야 할 立場에 있는 셈인데 얼마큼 제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음에 농민문제와 關連하여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農가의 平  
均收入은 都市의 勞動者의 平均수입보다 훨씬 낮다. 뿐만 아니라  
 地主에 의한 土地점병은 1950年代의 農地改革이후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졌던 小作制度가 形態와 名稱을 달리해 다시 되살아  
 났으며 (「어울리」, 「샅로지」, 「선도지」등으로 변형) 小작료도  
 最高는 수확의 切半에 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每年 小作農의  
 數가 늘어가고 있는 것이다. 52) 더군다나 不在地主의 增加는 都  
 市區域의 擴張과 工團造成 및 새마을 사업에 따른 農路開設등으로  
 줄어드는 耕地를 農민들에게 더욱 희소하게 만드는 作用을 하고  
 있다.

小作農의 계속적인 증가 추세는 小작료의 引上을 隨伴할 것이며  
 따라서 그대로 放置될 경우 日帝時代에 볼 수 있었던 小作爭議가  
 農村에서 再現될 可能性이 크다고 하겠다.



經濟問題와 關聯하여 단한가지 言及되어야 할 것은 失業者의 問題이다. 南韓의 失業率은 每年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상당한 수의 失業者 및 非正常就業者가 存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3) 特히 失業率은 非農家人口中에 많다. 失業者問題는 前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南韓이 가지고 있는 脆弱點임에는 틀림없다.

#### 5) 地域的 對立面에서 본 脆弱點

南韓의 團結을 저해하는 또하나의 要素는 地域感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地域感情은 大體로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하나는 都市 對 農村이고 또하나는 地方 對 地方이다.

우선 都市 對 地方의 感情을 보면 「서울 각쟁이」나 「촌놈」이니 하는 말에서 느낄수 있는것 처럼 相對方을 좋지않게 얘기하는데 大體로 都市 對 地方의 差別에 있어서는 都市人들은 地方民을 낮게보는 경향이 있다. 地方民들은 劣等意識에 사로 잡혀 있지만 그에 대한 反撥로써 都市사람에 대한 敵對感을 갖는것이 普通이다. 이와 같은 差別은 李朝때부터 관청이 都市에 있고 特히 서울은 權府로써 支配階級이 사는 곳이며 官尊民卑의 폐습이 아직 그대로 國民의 머리에서 完全히 가지지 않은 이유에서 오는 것이다. 地方 對 地方의 對立은 5.16以後 全羅道와 慶尙道 사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兩道間의 對立의 좋은 例는 大統領選舉에서 나타나는데 全羅道는 「全羅道 푸대접」論과 아울러 多分히 野党的 色彩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에서 그

나마 地方的對立을 나타낸다는 것은 不幸한 일이지만 事實로서 存在하고 있음을 否認할 수는 없는 것이다.

地方差別이 思想的對立으로서 까지 發展할 수 있었던 例는 日帝時代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即 筆者가 調査해 본바에 의하면 日帝時代에 咸鏡道出身으로 全國적으로 알려진 名士들은 거의 全部가 左翼系列이었고 黃海道와 京畿地方出身의 著名인사들은 圧倒적으로 民族主義系列이 많았다. 이처럼 地方에 따라 左翼과 右翼으로 나뉘어진 이유에는 물론 다른 이유도 많았지만 筆者의 見解로는 李朝時代에 西北人 即 平安道와 咸鏡道人을 높은 官職에 起用하지 않았던 差別대우가 主要原因이 되었던것 같다. 即 전통적으로 中央으로부터 迫害와 差別대우를 받아온 咸鏡道사람들로서는 日本으로부터 解放되기는 원하나 過去의 政治制度로 돌아가는것을 願치 않았기 때문에 自然히 共產主義를 信奉하게된 사람들이 많게 되었을 것이며 李朝政治에 中心的으로 參與해온 黃海道 以南사람들에게는 日本의 굴레에서 벗어나는것 만을 最大急先務로 생각하는 民族主義 路線을 主張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平安道の 경우는 李朝政治에서 쿠데장을 받았다는 点에서는 咸鏡道와 다름 없으나 그 反撥로써 일찌기 西學과 基督教의 影響을 받았기 때문에 뒤에가서 共產主義의 影響을 많이 排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論議는 咸鏡道の 再版이 南韓의 어느地域에서 可能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地方的差別이 심해질 경우 그 反撥은 南韓의 分裂을 원하는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에 有利한 조건을 마련한다는 것을 지적할 뿐이다.

最近 大財閥을 위시하여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不動產「부」의

余波로 地方의 土地 特히 農地를 많이 사들여 不在地主로서 社会的 物議를 일으키고 있다. 具體的인 內容이 밝혀지지 않아 不在地主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 수 없지만 零細農은 계속늘고 10町步以上 所有者의 數가 계속 增加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不在地主에 의하여 소유된 땅이 莫大하리라 推測되는데 이와같은 現象이 계속될 경우에 地方民의 都市人 特히 서울에 대한 感情은 한층 더 惡化될 것은 當然하다. 政府에서 不在地主의 農土所有를 억제하기로 決定한것은 잘하는 処事인데 問題는 解放後 南韓의 土地改革이 너무 時日을 오래 끌므로 해서 他人의 名儀를 使用하는等 土地改革의 精神에 위배되는 行爲를 防止하지 못했던 經驗을 되살려 똑같은 前例를 밟지 않도록 철저한 對策이 있어야 하겠다.

#### 6) 民族主義面에서 본 脆弱點

1965年 韓日關係正常化 이후 韓日關係는 特히 經濟的次元에서 密接한 유대를 맺어왔으며 「닉슨·독트린」으로 요약된 美國의 對外政策의 轉換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韓日關係는 보다 밀접한 關係 유지가 要請되고 있다. 그런데 對美關係와는 달리 對日關係에 있어서 韓國은 韓國民의 民族的感情으로 말미암아 (日本人의 對韓國人感情도 마찬가지이다) 여러가지 制約을 받고 있다.

첫째, 韓國의 指導者들은 日帝時代에 抗日운동을 한 經歷이 별로 없으므로 해서 對日本政策에 國民들로부터 親日이라는 或은 低姿勢라는 誤解가 없도록 各별한 神經을 써야될 立場에 있다.

실제로 金日成은 自身の 抗日運動을 誇張하여 宣傳하고 南韓의 指導者들을 全部 親日派로 規定함으로써 韓國民의 民族的感情을 人民革命戰略에 유도코저 努力하고 있다.

둘째로 政府는 政府의 對日關係政策에 反對하는 사람들은 純粹히 民族的感情에서 反對하는 사람, 反政府運動을 爲하여 反對하는 사람 그리고 反體制運動을 目的으로 反對하는 사람의 세 가지로 区分하여 正確히 識別해야될 地에 놓여 있다. 萬一에 反體制運動을 目的으로 하여 反對하는 사람을 순수히 民族的感情에서 反對하는 것으로 誤認한다던지 或은 역으로 純粹히 民族的感情에서 反對하는 경우를 反體制運動을 爲하여 反對하는 사람으로 잘못 判斷할 경우 그 結果는 둘다 反體制를 爲한 人民革命戰略에 유리하도록 만드는 것 밖에 안되는 것이다.

세째로 美國과는 달리 日本은 韓國關係에서 經濟的利益을 추구하기 때문에 韓國을 경제적으로 壓속하려는 日本軍國主義 云云하는 北傀의 主張은 部分的으로는 南韓國民에 어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最近에 증가되는 日本資本의 浸透와 觀光客들에 의한 不美한 行動은 韓國사람들의 民族的感情을 極度로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對共鬪爭에 있어서 國論을 統一해야할 韓國側으로는 問題점이 아닐수 없다.

以上으로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에 關聯시켜 南韓의 強點과 脆弱點을 大充 重要하다고 生覺되는 것을 中心으로 간단 간단히 살펴 보았는데 大體的으로 南韓이 가지고 있는 強點때문에 人民革命戰略이 實効性을 거두기는 어려울 꺼라는 인상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론은 強点과 脆弱点を 物量的 比較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直觀的이고 主觀的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큼 讀者들에게 대하여 설득력이 있는지는 筆者自身도 의문이다. 따라서 人民革命戰略이 實効性이 없더라던지 아니면 20% 或은 40% 있다던지 式的 論議보다는 韓國이 가지고 있는 強点과 脆弱点으로 미루어보아 人民革命이라는 事態가 난다면 어떠한 곳에서 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發生한 것인가를 비록 지극히 假定的이고 推想的이라 하더라도 논의해 보는 것이 차라리 意義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共產革命의 例로 보아 南韓에서 万一에 人民革命, 다시 말해서 共產分子主導의 反体制蜂起가 일어난다면 다음중에 하나의 形態를 取할 것이다.

가. 서울에서 地方으로 拡散되는 蜂起

나. 地方에서 서울을 포위하는 蜂起

다. 地方의 都市들이 foco<sup>54)</sup>가 되는 경우

라. 서울의 번두리가 foco가 되는 경우

(가)의 경우는 4.19나 5.16 軍事革命같은것이 共產主義者에 의하여 主導되는 것을 想定한 경우인데 可能性은 희박하나 이러한 事態가 일어날 경우 소위 北韓의 人民革命은 成功할 可能性이 많다. 이와같은 事態는 좀처럼해서 일어날 수 없는것이 우선 蜂起 勢刀에 있어서 서울市民들이 大的으로 右翼을 지지하는 例란 웬 단해선 생각키 어렵기 때문이다.

(나)의 경우는 東學亂과 같은 事態의 再現에 比較할 수 있는데 이것역시 상상키 어렵다. 이와같은 事態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農民蜂起가 제법 오래 지속되어 계속 呼応을 받아야 되는데 過去와 달라 政府의 反革命力량의 기동성이 빨라 蜂起勢刀이 事前에 軍事基地設置等 準備가 없는限 이루어 질수 없는데 中共의 경우와 같은 이런 事態는 예상키 어렵다.

(다)의 경우는 各地域에 있는 工業團地의 勞動者 或은 都市의 勞動者等이 左翼의 선동에 의하여 일어나는 경우 같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現在의 工業化水準으로서는 勞動者들이 蜂起를 주로할만한 數字가 되지 못한다.

(라)의 경우는 「廣州단지事件」같은 것으로서 規模가 큰 경우이다. 現時點에서 가장 可能性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南韓의 脆弱點들이 比較的 가장 많이 모인곳이 서울의 變두리의 狀況이기 때문이다. 卽 서울의 變두리는

- ① 失業人口 低所得人口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貧富의 差를 實感할 수 있으며
- ② 서울의 社会的병폐 卽 不正 腐敗, 허영, 사치, 浪費, 不信 및 金錢万能주의를 日帝生活에서 매일 격으며 어느 意味에서 는 이러한 社会的 병폐의 오늘은 피해자들이며
- ③ 이들의 많은 部分은 農村에서 뛰어나온 젊은이들로서 서울에서의 生活에 시달릴 경우 돌아갈곳도 마땅치 않은데서 좌절감을 자주 느끼게 된다.

이와같은 限界的 狀況에서 都市 變두리의 사람들은 疎外感과 모멸감에서 現實否定的의 선동에 휘말리기 쉽다. 特히 젊은이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sup>55)</sup> 그러나 이들의 否定的態度는 根本性格에

있어서 「아노미」的이며 다만 몇번 拘禁等を 通하여 組織的이며 戰鬪的인 類型으로 될 수 있으나 人民革命으로 成功시킬 可能性은 역시 희박하다고 봐야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事態가 共產革命으로 結實을 얻을 수 없는 主原因은 蜂起勢力의 成分이 多分히 「룸펜 프롤레타리아트」계층이기 때문이며 다른 社會勢力들이 非組織的이며 감정적인 이들에게 얼마나 呼応할 것인지는 지극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毛沢東의 경우와는 달리 北韓의 人民革命戰略에서는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의 役割을 尠히 言及치 않은것은 現時點에서 南韓의 가장 큰 동요세력이 바로 다른社會勢力아닌 「룸펜 프롤레타리아트」라는 點에 「아이로니」가 있다고 하겠다.

## 5 . 對 策 ( 結 論 )

北韓의 對南人民革命戰略은 以上으로 본 바와 같이 가까운 將來에 實効를 거둘것을 目標로 한 短期的戰略이라기 보다는 南韓内部의 分裂을 可能한 限 助長하므로써 南韓의 對共자세를 교란시켜 「언젠가 있을 남조선해방」을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大韓民國의 内部的 分裂을 助長하는 方法은 곧 南韓의 脆弱點을 最大限으로 利用하는 것일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脆弱點을 早速히 補完 示정토록 努力해야 될 것이다.

첫째, 理念面에서, 「韓國의 民主主義」의 內容을 좀더 具體적으로 明確히 밝히고 理論적으로 體系化 해야되며

둘째, 政治的 側面에서 政治的自由의 限界를 明確히 함은 勿論 政治的自由의 制限이 執權黨의 執權계속을 위한 政敵彈壓의 手段이 안되도록 制度的措置를 講究하고 反政府運動과 反體制運動(共產主義運動)을 混動하는듯한 인상을 주지 말것이며

셋째, 모든 社會的弊弊를 없애는데에는 權力이 개재된 不正에 대하여 加重的處罰, 公務員의 기강確立, 實績本位主義의 高취를 무엇보다 強調할 것이며

네째, 低所得層의 계속적인 保護를 추구할 것이며 株式公募와 새로운 經營 中間階層(new managerial class)의 養成에 의한 大企業風土의 改善

다섯째, 一切의 地方的差別 및 對立의 惡習을 철폐토록 努力할 것이며 (必要하면 道의 명칭을 바꾸거나 道의 行政區域을 改編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여섯째, 民族主義를 고취하는 것 (다만 前近代的인 국수주의는 배제)

일곱째, 固式的인 反共教育을 止揚하고 效果的인 反共教育으로 代置할것 등이 우선 시급히 요청된다.

이와 같은 制度的補完 및 是正이 이루어 지기에는 多小 時間이 必要할 것인데 그동안에 注意할 點은 可及的이면 두가지 以上の 龜裂의 線 (Cleavage line) 이 重複되는 것은 積極 避해야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地域은 地方的差別도 받고 經濟的으로도 落後되어 있다면 龜裂의 線이 두개가 겹쳐져서 地方的差別만 받는 地域보다 人民革命戰略에 參與될 소지가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都市의 周辺, 特히 서울의 변두리가 現時點에서 反體制運動에 參與될 소지가 가장 많다고 본것은 바로 龜裂의 線이 여러개 重複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筆者는 政府가 우선 全國的으로 이와 같이 龜裂의 線을 여러개 포함하고 있는 地域부터 찾아내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一方, 또 한편으로는 위에 提示한 일곱가지 方案을 強力히 實踐할 것을 建議하는 바이다.

[ 註 ]

(註1) : 소련의 史學者들에 依하여 흔히 지적되고 있는 1917年 「러시아」의 「볼셰빅」혁명의 成功要因은 大略 여섯가지로 綜合될 수 있다.

- ① 労働者階級の 主導的役割
- ② 労働者階級과 農民階級の 同盟
- ③ 「소비엣」의 二重權力構造
- ④ 「러시아」「부르조아」階級の 弱体性
- ⑤ 外國干涉勢力的 分裂 그리고
- ⑥ 「레닌」의 『새로운 形態의 黨 (Party of a new type)』의 適合한 政策, Thomas Thornton, "The Emergence of Communist Revolutionary Doctrine", Cyril E. Black and Thomas P. Thornton(eds), Communism and Revolu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4) p.43

(註2) : 農民에 대한 「맑스」의 見解는 Karl Marx, "Peasant as a Class", Teodor Sharin (ed.), Peasants and Peasant Societies (Harmondsworth, 1971), pp.229-37 에 잘 集約되어 있다.

(註3) : 兩派間의 論爭의 內容에 關해서는 J.A.A. Stockwin, The Japanese Socialist Party and Mutualism

(Melbourne University Press, 1968), Chapter II  
와 George O. Totten, The Socialist Democratic  
Movement in Prewar Japan (Yale University Press,  
1966), pp.192-195를 参照할것

(註 4) : Stuart R. Schram, The Political Thought of Mao  
Tsetung (New yak : Frederick A. Praeger, 1969)

(註 5) : 以下の 類型区分은 R.V. Burks 의 区分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仔細한 内容은 R.V. Burks, "Easteru  
Europe", Black and Thornton (eds.), op.cit.,  
pp. 77-116을 볼것.

(註 6) : 「체코슬라바키아」의 民族前線形成에 있어서 2次大戦  
발발 以前에 가장 큰 政黨이었던 農民黨이 除外되었다.  
Ibid, p.101

(註 7) : 『1961年 9월 11일 노동당 제 4 차대회에서 한 사업  
총화보고』, 『1964년 2월 2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  
회 제 4기 제 8 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5년  
4월 15일 「인도네시아」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  
서 한 연설』,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사  
설, 「1966년 10월 5일 노동당 대표자회의 보고」,  
「1967년 12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제 4기 제 1 차회의  
에서 발표된 「공화국정부 정강」, 「1968년 9월 조

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건 20주년 기념식에서 한 연설』등에서 발췌.

(註8) : 『1970年 11월 2일 노동당 제 5차 당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註9) : 이러한 見解의 代表的인 中共 專門家로는 Chalmers Johnson 을 들 수 있다. Chalmers A. Johnson, Peasant Nationalism and Communist Powe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2.)

(註10) : 많은 사람들이 이 範圍에 들어간다. John K. Fairban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3rd ed,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Stuart Schram, Mao Tse-tung (rev. ed., Penguin, 1967),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 Beacon, 1966.) 等

(註11) : 自由中國의 學者들의 見解, 다른 나라 共產主義運動에 대하여 이와 같은 見解로는 Lucian Pye, Guerrilla Movement in Malaya 를 들 수 있음.

(註12) : 예를 들면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Yale University Press, 1968.)

- (註 13) : Donald G. Gillin, "Peasant Nationalism in the History of Chinese Communism,"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XXII No. 2 (Feb. 1964) pp. 269-289
- (註 14) : Crane Brinton, *The Anatomy of Revolution*, pp. 39-49 ; Samuel P. Huntington, *op. cit.*, pp. 288-91 ; and Raymond Aron, *The Opium of the Intellectuals*, pp. 236-64.
- (註 15) : Robert A. Scalapino (ed.), *The Communist Revolution in Asia* (Prentice Hall Inc., 1965) pp. 2-6
- (註 16) : 褻成竜, "東洋社会 近代化過程の推移 및 諸問題" *亞細亞研究*, 第7卷 第1号 (1964), pp. 154-55.
- (註 17) : Nicolas Berdgaev, *The Origin of Russian Communism*, pp. 19-21.
- (註 18) : George Beckmann and Akubo Giuji, *The Japanese Communist Party, 1922-194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5) pp. 8-11
- (註 19) : Stuart R. Schram, *The Political Thought of Wao Tse Tung*, p. 33

- (註20) : 後進國 共產主義運動과 關聯된 많은 共產主義文獻이 이  
와 같은 見解를 表明하고 있다. 우리나라 狀況과 관련  
하여 이러한 見解를 나타낸 것으로는 1928年 Com-  
intern에서 發表한 所謂 「十二月 提議」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수가 있다. 「十二月 提議」의 內容에  
관해서는 Dae-sook Suh (ed.), Documents of  
Korean Communism, 1918-1948 (Princeton Uni-  
versity Press, 1970), pp.243-56 을 參照할것
- (註21) : T.B.Bottomore, Elites and Society (Penguin  
Books, 1964). pp.77-86.
- (註22) : William Kornhauser, The Politics of Mass  
Society (The Free Press, 1959), pp.212-22
- (註23) : Ibid., pp.217-18.
- (註24) : Seymour Martin Lipset, Political Man (Anchor  
Books, 1963), p.118.
- (註25) : Ibid., pp.127-79.
- (註26) : 東亞日報, 1974.5.5
- (註27) : 張源宗, "農業問題에의 發展과 方法", 政經研究,  
1974年 6月号, p.179

(註28) : 姜辰國, "農地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新東亞, 1974年 4月号, p.153.

(註29) : Hoon K. Lee, Land Utilization and Rural Economy in Korea,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36) p.280, 이 統計는 1930年度의 것임.

(註30) : 筆者의 調査에 의하면 約 60個의 小邑이 1963년 부터 1893년 사이에 있었음.

(註31) : 많은 사람들이 東學亂을 單純히 東學教徒들이 信仰의 自由를 爲하여 일으킨 亂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筆者는 이와 같은 解釋은 極히 古식적인 解釋이라고 생각한다. 東學教徒가 同亂中 重要な 役割을 한것은 事實이나 同亂이 그렇게 큰 規模로 發展할 수 있었던 이유는 農民들이 中央政府에 대해서 三權의 亂亂때문에 蜂起合勢한 까닭이다.

(註32) : 義兵運動역시 그렇게 오래 지속 할 수 있었던 原因은 地方의 儒生들이 中心이 되긴 하였으나 農民들이 合勢한 때문이다.

(註33) : 三·一運動 역시 都市의 知識人, 學生, 小商人들이 始作을 하였지만 農民들이 合勢함으로써 全國的인 運動으로 發展되었던 것이다. 이 運動은 서울의 指導者들이 無 저항운동이 되기를 호소하였지만 地方에서는 住民暴力運動

으로 발전하여 그 結果 約 7,500 名이 死亡하였고  
15,000 名이 부상을 입었다. 한 統計에 의하면 이 事  
件때문에 有期刑을 언도받은 사람들의 54%가 農民으  
로 되었다. 坪記汕二, 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 (嶽南堂,  
1959) p.709

(註33): 仔細한 內容은 Se Hee Yoo, The Korean Communist  
Innernent and the Peasantry under Japanese Rule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at Columbia  
University, 1974) 에 수록되어 있음.

(註34): Roy Hofheing, Jr., "The Ecology of Chinese  
Communist Success: Rural Influence Patterns,  
1923-1945," A.Doak Barnett(ed.), Chinese  
Communist Palities in Ac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9)

(註35): Eric Wolf, "On Prasant Rehellion", Teodor  
Shanin(ed.), op.cit. pp.264-74

(註36): Loc. cit

(註37): Yoo, op.cit., pp.246-61

(註38): Huntington, op.cit., Passim

(註39): Karl W.Deutsch, Nationalism and Social Communi-



cation (the MIN Press, 1953) and The Nerves of Government (The Free Press, 1963)

(註40): Leon Epstein, Political Parties in Western Democracies (Frédéric A. Praeger, 1967), Passin

(註41): 이와같은 見解를 表明하고 있는 代表的인 學者들로는 Joseph Lapalombara, Myron Weiner, Seymour Lipset, Daniel Bell 등을 들 수 있다.

(註42): 흔히 言及되는 要因들로서는 1) 經濟的貧困과 2) 資本主義의 副産物이라는 見解가 있다.

(註43): Banfield의 研究의 內容에 關해서는 Edward C. Bau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1966 를 볼것

(註44): Gunnar Myrdal, The Challenge of World Poverty (Pantheon, 1970), Chapter 7.

(註45): 金英鎔, "銀行不正", 新東亞, 1974年 6月号, p.92

(註46): Brinton, op.cit. p.32

(註47): Lipset, op. cit. pp.53-58

(註48): James C. Davie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27, No.1 (February 1962) pp.5-19

(註49): 이 數字는 免稅點 引下와 關聯하여 國稅庁에서 發表한 것인데 紙上에 報道된 것임.

(註50): Huntington, op.cit., p.41

(註51): Ralf Dahreudorf, Class and Class Conflict in Industrial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pp.223-30.

(註52): 東亞日報, 1974年 5月3日字

(註53): 1971年 3月現在 全國의 失業率은 3.7%로서 1965年の 7.4%에 比하면 많은 減少를 보이고 있으나 非農家의 失業率은 9.2%로서 아직도 높은 失業率을 보이고 있다. 韓國統計研究所編, 1972年 統計年鑑, p.135

(註54): Foco 라는 말은 「스페인」語로 直接싸움이 불붙는, 이 물대면 유격전의 中心이 되는곳을 말한다. 이 말은 Régis Debray 의 問題의 著書 Revolution in the Revolution? 에 소개되었는데 後方基地 或은 軍事基地의 建設이 地理的으로 可能했던 中共과 달리 中南美의 작은 나라들은 共產蜂起는 軍事基地에 依存할 수 없고 直接 유격전式蜂起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는 概念이다.

(註55): 心理的 側面에서 過激한 大衆運動을 分析한 代表的  
學者로는 William Kornhauser 를 들 수 있다.  
Kornhauser, op.cit 參照.